

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2014년 봄 제134호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동창

2014년 봄 제134호



- | | | |
|----|-----------------------|--------------------------------------|
| 02 | • 봄의 시 | 그대 이현명 |
| 03 | • 봄에 전하는 말씀 | 동창들의 사랑이 대학을 말합니다 장명수 |
| 04 | • 화보 | 2014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개최 |
| 08 | • 신입동창 답사 | 열심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화인이 되겠습니다 오영주 |
| 09 | • 총동창회 사업계획 | |
| 10 | • 기획특집 |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30억 원 모금 이야기 |
| 16 | • 기획 시리즈 | 노교수와 사랑하는 제자들—수학과 |
| 20 | • 기획 시리즈 | 소설가 김선주가 만난 이화 경영인 이순선 회장 |
| 24 | • 이화 유망주 | 소경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장 |
| 26 | • 자랑스런 이화동창 | 박정자 연극배우 |
| 28 | • 기획 브쁘 | 세계 최고 최초 지향, 우리 모교 이화 탐색 4—이화웰컴센터 |
| 32 | • 이화 사워석 | 미국생활 30년, 아내 덕분에 '노래방 아저씨' 되다 석창호 |
| 34 | • 알아두면 유익해요 | 수명 100세 시대 노인재활은 꼭 필요하다 이원영 |
| 36 | • 생활법률 | 가족 간 재산분쟁 해소 위해 '유류분 반환청구권' 알기 이지은 |
| 38 | • 총동창회소식 | |
| 40 | • 대학 소식 | |
| 42 | • 과·학부 소식 | |
| 46 | • 국내·해외지회 소식 | |
| 54 | • 동창소식 | |
| 58 | • 모교 소식 | |
| 59 | •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 후원 약정서 |
| 62 | • 신입동창명단 | |
| 73 | • 바자회 | |
| 74 | • 축하합니다 | |



편집위원

조종남(의약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효신(의약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은(영문79) | 박경희(신방90)

2014년 봄 제134호 비매품 | 발행 · 2014년 4월 5일 | 발행인 · 조종남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 · 3387

E-mail : ewhaalum@ewha.ac.kr

편집 · 도서출판 문예바다(02-744-2208) | 디자인 · 박래후편집공방 www.raehoo.com 02-742-9991
인쇄 · 독일인쇄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4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그대

이 현명 (영문 64)

새벽이 바삐 지나고
이른 아침이 오는 유리창으로
한 줄기 광선 들어온다

누굴까
희망의 빛을 보내는
오래 전부터 내게 관심을 보이는 이는

새순처럼 여렬 때도
마음과 몸이 타오르는 열기로 가득했을 때도
그윽이 나를 지켜주는

오 그대여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내주는
그칠 줄 모르는 당신의 관심 또는 사랑

그 품 안에서
오늘도
행복의 운행을 시작한다

1989년 문학시대로 등단, 미래시동인
사집 「흔물」「커튼사이로」 외 동인사집과 수필집 다수
영화제작감독: 40년 그리고 30년(장려상) 갈증(대상)
「수선화(예포딜스)」(우수상, 장려상)

동창들의 사랑이 대학을 말합니다

장명수 | 신문학 64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언제부터인지 대학을 평가할 때 몇 가지 수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학생 성적이 상위 몇 프로인가, 졸업생 취업율은 몇 프로인가, 장학금 지급율, 등록금 의존율, 교수수와 연구실적, 외국인 학생 수 등등의 수치들로 대학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풍조가 이미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도 이런 풍조를 피해갈 수 없어서 수치들을 적용해 순위를 매긴 평가자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자료가 신문 방송에 보도되고 나면 많은 동창들이 “어떻게 우리 학교가 이런 대학들 보다 아래로 갔느냐”는 안타까운 전화를 학교에 걸어주시곤 합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도 그런식의 순위 매김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졸업생 취업율 등 여자대학에 불리한 몇 가지 수치들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 지표를 관리하여 사회적 평가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학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그 학교의 졸업생들이 모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화인들이 이런 생각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화캠퍼스를 떠난 후 사회와 가정에서 정신 없이 바쁘게 살아가던 졸업생들은 어느 날 문득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은 이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운 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이화의 교육에서 나왔다는 사실, 이화의 가르침이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감동적인 모교와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이화의 교육에 감사하고, 이화의 교육을 지지하고, 이화에서 배우는 후배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교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50년, 60년을 지나면서 사랑과 감사도 성장하고 놓이 는 것 같습니다.

이화의 선후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던 이화캠퍼스엔 지금 봄이 가득합니다. 목련 진달래 개나리 산수유 등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어서 꽃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배들 역시 이화동산에서 아름다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고민하고 성취하고 좌절하는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128년 동안 강처럼 바다처럼 흘러온 이화인들의 흐름을 생각하며 이화를 더욱 더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2014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환영회 개최

20여만 동창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 발표

지난 3월 8일 오후 2시 총동창회는 2014년도 정기총회를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 삼성 교육문화회관 8층)에서 개최하였다. 모교 윤후정 명예총장, 김선옥 총장, 장명수 이사장, 양옥경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하여 총동창회 윤순희(교육 65), 김순영(약학 62) 고문 및 약 20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지난 3년 동안 총동

창회 회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준 많은 동창들께 진심을 담은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우리 이화는 128년 전 스크랜튼 선생님으로부터 면면히 내려오는 개척정신을 이화 정신 속에 담고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여성 리더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윤후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사장, 김선옥 총장께 박수를 보내고 늘 든든한 후원자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윤순희, 김순영 고



장명수 이사장



조종남 총동창회장



김선옥 총장

문께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20여 만 동창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기 위한 2014년도 행사로 5월 17일 가족과 함께 모교 교정을 즐길 수 있는 ‘제 3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및 동창의 날 행사를 위해 모교를 방문하게 될 해외동창들을 위한 이화 교내 투어와 오찬이 5월 31일에 준비되었음을 발표하며 동창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였다.

더불어 특별히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총동창회 정보통신부 신설 기념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 대회’를 소개하고 4월 1일부터 1주일간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참석 동창들의 많은 홍보와 응모 참여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개회사에 이어 축사를 한 장명수 이사장은 “최근 대학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고의 ‘이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20여만 명에 이르는 훌륭한 동창들의 모교 사랑 덕분이며 동창으로써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된 큰 깨달음은 ‘여자가 제일이다, 여자가 위대하다’는 ‘이화’의 가르침 덕분에 최초의 일간지 사장이 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또한 앞으로 ‘이화’의 힘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퍼져있는 20여만 동창들이 긴밀하고 튼튼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든든하게 ‘이화’를 받쳐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여 참석 동창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김효신(의학 84)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박귀천(법학 95) 서기의 전회의록 낭독, 유희숙(법학 65) 감사의 2013 회계년도 감사보고, 2013 회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4 회계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의 순서로 진행



되었으며 각 순서마다 참석 동창들의 큰 박수 속에
가'로써 조종남 총동창회장이 인준을 선포하였다.

한편 김선욱 총장은 '모교소식'을 통해 '이화' 가지향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모교 발전을 위해 총동창회가 연전에 모금하였던 50억 원에 대해 당시 모금을 주도한 김순영 제15대 총동창회장께 다시 한 번 감사를 하며 30억 원을 약정하여 작년부터 모금을 시작한 '이화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모금을 위해 진력하는 총동창회에도 감사를 표하였다.

더불어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기기를 갖추고 전체가 1인 병실로 건립될 마곡지구 복합 의료 단지를 발표하여 참석 동창들에게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며 관심을 집중시켰다.

총회는 교가 제창을 마지막으로 폐회하였고 참석 동창들은 총동창회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고 앞으로 열릴 많은 행사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제 총동창회는 작년도 총회에서 인준한 회칙 개정으로 대학원 졸업생들이 정회원이 되었으며 평생교육원, 이영회, ALPS 등 이화 평생 교육을 이수한 졸업생이 특별회원이 됨으로써 더욱 확대된 총동창회로 거듭나고 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개최한 신입 동창 환영회에서는 2013년도 졸업생 약 3천 5백여 명이 총동창회에 신입 동창으로 입회함을 축하하는 환영회를 가졌다. 이경옥(체육 80) 회우부장의 사회로 시작한 이 날 환영식에서 작년 8월과 지난 2월에 졸

엄한 2014년도 신입 동창들은 선배 동창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박유나(도예 81) 부회장의 기도로 환영식을 시작하였다.

임혜란(경영 78) 경영대학 동창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과 두려움이 신입 동창들을 활기와 극복하려는 용기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미국의 경영학자 짐 콜린스의 말을 인용하여 ‘실현되기 어려운 꿈이라도 이를 만한 가치가 있는 확신을 갖는다면 비전이 되며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지라’고 신입 동창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신입 동창들을 위해 동창회가 항상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신입동창들도 동창회 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즐거운 마음으로 이행하여 동창회와 모교

의 발전에 함께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이어서 오영주(공과대학) 신입 동창은 ‘채플시간에 늦어 대강당 계단을 뛰어 오르며 그 많은 계단들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대강당 사진만 보아도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면서 ‘이화’에 머무르며 얻은 것 중 가장 빛나는 것은 ‘첫째 여성으로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삶에 대해 계획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항상 모교가 든든하게 감싸 안아주므로써 타 대학의 숱한 남학생들과의 경쟁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사를 하여 선배 동창들에게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신승아(성악 98) 동창의 ‘꽃 구름 속에’와 ‘O mio babbino caro’ 등 멋진 축가를 들으며 선후배 간의 돋도한 우정을 나눈 환영회를 마쳤다.



열심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화인이 되겠습니다

오영주(컴퓨터공학과, 14)

먼저 제가 많은 신입 동창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여러 동창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채플시간에 늦어 대강당 계단을 뛰어 오르며 그 많은 계단들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대강당 사진만 보아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보니 제가 정말 졸업을 했구나 싶기도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 가르쳐주시면서도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 애써주시는 교수님들과 여자들만의 끈끈한 우정을 가르쳐 준 친구들, 언제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던 아름다운 교정을 떠날 생각을 하니 허전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화에 머무르며 얻은 것 중 가장 빛나는 것이 있다면 첫째로 여성으로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삶에 대해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일 겁니다.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저는 여성 공학도로서 다수의 남성 공학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또 그들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제 스스로 저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 의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성장시킬 계획을 하고, 누군가가 나서서 해 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화는 저를 항상 든든하게 감싸 안아주면서도 그 안에서 고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화 안에서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모전, 인턴십, 프로그래밍 대회 등에서 타대학의 슬한 남학생들과의 경쟁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 공학자로서 소수자로 구별되어 차별받을 수 있는, 어쩌면 약한 위치에서 있을 수 있으나 '이화'라는 이름만으로 씩씩하고 아무진 한명의 공학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졸업을 하여 정든 이화를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설레고 가슴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낯설기도합니다. 하지만 많은 동창 선배님들께서 이화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조금씩 발을 내딛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선배님들이 그러셨듯이 후배님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 선배님들에게 자랑스러운 후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열심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화인이 되겠습니다.

이화 동창의 회원이 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총동창회 사업계획

2014. 3. 1 – 2015. 2. 28

총동창회는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사업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창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신입동창환영회 및 정기총회(3월8일)

제1회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 대회(4월1일 ~ 8일)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지회장 초청 간담회(4월16일)

메시아예수 밸레공연(4월26일)

제3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5월17일)

이화창립128주년 기념 감사찬양제(5월 20일)

동창의 날 행사(5월 30일)

졸업50주년(1963년 12월 졸업), 졸업30주년(1984년 졸업)동창 재상봉 행사

회보경연대회

합창제

해외지회 동창을 위한 간담회(5월 31일)

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バ자(6월 12일)

이화교정 걷기 행사(9월 20일)

후원이사 간담회(10월)

문화특강(문화팀방)(4월, 10월)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10월 30일~11월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 10 회 '아름다운 이화인상' 시상(11월 24일)

이화인의 밤 개최(11월 24일)

이화가족 성단예배(12월 4일)

동창회보 134호~137호 발간(3, 6, 9, 12월)

국내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 순방(전반기, 후반기)

연회비 납부회원 배가운동(연중)

후원이사 증원(연중)

도교발전기금(글로벌여성허브교육기금) 모금(연중)

동창회 기금 마련 위한 바자(소바자)

지원 사업(연중) 1) 무료 법률상담 2) 나눔가게 등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연중)

황화방 운영(연중)

기타



HA HONORS CLUB
스클럽 친선 골프모임



장소 | 가수 김리클럽 | 대외협력처



기획특집 |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30억 원 모금 이야기

동창이 만드는 이화사랑온도계 100도

총동창회가 작년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모교에 '이화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30억 원 약정서를 전달한 이후 기금 모금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리 동창들의 '이화 사랑' 온도계가 100도를 향하는 모금 현장을 찾아 소개한다.(편집자 주)



‘이화아너스클럽’ 회원들의 이화사랑 온도계

2013년 총동창회가 모교 발전을 위해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30억 원을 약정하고 이를 모금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을 때 모교의 ‘이화아너스클럽(Ewha Honors Club)’ 후원의 밤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이화아너스클럽’은 회원들에게 모교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모교 발전기금 고액 후원자를 대상으로 클럽을 만든 것이다.

평생회원과 정회원이 있으며 평생회원은 이화의 건축물 신축에 도움을 준 기업 또는 개인이고, 정회원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후원 내역이 있는 후원자들 중 총 1억 원 이상 약정한 후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년이 모교 개교 128주년임을 생각하면 1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동창들이 모교를 위해 후원했을까 싶어 2006년 이전 후원자들이 서운할 것 같지만 또 어찌 생각해보면 지금이라도 이런 모임이 있어 후원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받는 것도 다행인 것 같다.

2012년 3월 14일 제1회 총장 초청 만찬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발족한 ‘이화아너스클럽’은 발족 당시 144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였는데 2014년 4월 현재 205명으로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회원에게는 기금 전달식, 총장 초청 만찬, 각종 문화행사(음악회, 특별강연 등), 골프모임, 근조기 배치 서비스 등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고 신규 회원에게는 이화의료원 건강검

진권도 증정하고 있다.

클럽 발족 후 지금까지 회원들은 총장 초청 만찬, 살롱음악회, 최재친 교수와 송효상 건축가의 특강, 친선 골프모임 등의 행사에 초청되었고 올해 3월 20일에는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2회 총장 초청 만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모교 발전기금 모금사업에 크게 도움을 준 후원자들께 학교가 지속적인 관심과 감사를 표하는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니만큼 모든 프로그램 속에는 회원들에게 ‘이화 사랑’을 불러 일으켜 지속적인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 숨어있다.

회원들 역시 특별예우를 받으려고 후원한 것이 아닌 만큼 이같은 예우에 대해 감사하며 ‘이화 아너스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회원 간의 네트워킹에도 관심을 보여 주변 지인들에게 이화아너스클럽을 소개해 주겠다는 등 호응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이화아너스클럽’ 회원들이 보여줄 ‘이화 사랑’ 온도계 수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크게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글. 유영선(신방75, 총동창회 홍보부장)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후원자 1호 권미경 동창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에 최초 기부자란 타이틀을 받은 권미경 동창을 만났다. 최초 기부자가 거액의 기부자가 아닌 평범한 동창이어서 은근히 반가웠다.

권미경 동창은 사범대학 교육공학과(전 시청각교육과) 1987년 졸업생이며, 현재는 학교 ECC 건물에 있는 신한은행 이화여자대학교지점의 지점장이다. 2011년부터 4년 째 이대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과거에도 4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졸업과 동시에 시작한 28년의 은행경력에서 같은 지점에서 두 번이나 근무하다니 이화와의 인연은 각별하다 싶었다.

어떻게 최초 기부자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2008년 학교 대외협력처에서 주관하는 이화직장인 신년하례식에 참석하였는데 그때 학교의 기금 모금 사실을 알고 2년 분할납부 100만원 약정으로 모교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2년 만기 후 재 약정했고 또 2년 후 재 약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마침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모금을 듣게 되었다. 한국 여성의 리더십교육에서 단연 대표주자인 이화가 이제는 세계 여성을 위한 중심에서 있기 위한 ‘글로벌여성교육허브’가 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한다는 이야기에 이화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선뜻 약정을 한 것이 우연히 최초 기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권 동창은 한꺼번에 큰 금액을 기부하기는 힘들지만, 기간을 정해 매달 얼마씩 기부하면 목돈



이 되어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5년 기한으로 1천만 원 약정을 했다고 한다. 한 달에 2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기금 모금에 참여한 것이다. ‘우연히’라고 했지만 사실 권동창은 이 밖에도 이대동창기금 모금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총동창회 후원이사로 기금 모금에 참여한 것 외에도 ‘선배라면’에도 동침했고 학과 50주년 모금에도 참여해 왔다.

권동창은 동창들이 졸업 후에는 학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모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두지 않기에 기금모금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월 1만원으로 후배들을 후원 할 수 있는 ‘선배라면’ 후원자가 3천 여 명이라고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웠다고 한다. 졸업생 수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교에서도 졸업 동창들과 연결의 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여 모교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여주고 모교의 발전 모습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면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것이 권동창의 바람이자 조언이다.

무엇보다 권동창은 모교 내에 근무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가르침을 주셨던 노교수님들을 학교에서 계속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이화에 대한 넘치는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수님과 직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화의 전통을 느끼기도 한다. 학창시절 추억을 되새기며 교정을 걸어보며 가슴 설레는 청춘을 다시 느끼고 미래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열정적인 똑똑한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찬 좋은 세상을 함께 꿈꾸기도 한다.

권동창은 기부, 후원, 나눔은 중독인 것 같다고 하였다. 기쁨으로 나누면 배가 되어 돌아오기에

점점 늘어나고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여성봉사단체인 (사)국제존타한국지구 회원이기도 한 권동창이 신생아를 위해 텔실로 모자를 떠서 해외에 보내는 자그마한 노력봉사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후원단체를 통해 3명의 해외아동과 1명의 국내아동을 후원하고 있는데 후원 아동들의 성장일지를 받아볼 때면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며 권동창은 활짝 웃었다.

우리 모두 이화의 동산에서 의무감과 부담이 아닌 나눔으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글. 김경은(영문 79, 이화동창편집위원)

2005, 2012 ‘올해의 이화인’들의 ‘이화사랑’ 현장

해마다 ‘동창의 날’ 행사에서 가장 빛나는 동창들이 있다. 각 과에서 졸업 30주년 동창들 중 한 명을 ‘올해의 이화인’이라는 이름으로 선출하여 단상에 앉게 하는 ‘이화’ 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전통이다. 50대의 연배에도 그들은 꽂처럼 화사하고 아름답다.

‘올해의 이화인’들은 대학도 과도 다른 동창들이 50세가 넘어 처음으로 만난다. 의과대학은 6년제라서 나이도 다르다. 여고 동창생이 혹여 있기는 하나 ‘이화’라는 울타리 외에는 그동안 일면식도 없었던 동창들이다. 그런 그들이 ‘올해의 이화인’ 행사 이후 모임을 만들고 합심하여 이번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모금에 일조를 하였다.

2005 올해의 이화인 모임





2012 올해의 이화인 모임

2005년도 ‘올해의 이화인’ 모임 회원 18명은 각자 100만 원을 기본으로 하여 모두가 흔쾌히 모금에 동참하여 약정액이 상당하다. 2006년부터 해마다 한 나라를 정하여 해외여행을 하고 국내 여행은 수시로 다니며 우정을 쌓고 있다.

50대 이후에 만난 만큼 더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 이 모임을 선순위에 두고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다.

2012년도 ‘올해의 이화인’들은 작년 11월 29일 전시회를 열고 그 날의 수익금 모두를 ‘글로벌 여성교육허브’ 기금에 후원하였다. 2개월에 한 번 정규모임 외에 1년에 2번 여행하기로 하여 함께 한 작년 제주도 여행에서 미대 출신 이화인들이 준비하는 작품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12년도 ‘올해의 이화인’ 모임 대표 어미화(불문 82)동창은 이번 기금 모금 협조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화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이화 동창이라는 특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여성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도약하고자 하는 이화여대의 정신을 동창으로서 적극 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20만 동창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한다면 그 길은 좀 더 쉽게 열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라고.

이제 한 계단 도약하는 모교를 위해 모든 동창들이 함께 ‘이화 사랑’ 온도계에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성경에도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도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고린도후서 9장 6절~7절)

글. 유영선(신방 75, 총동창회 홍보부장)

노교수의
회상

38년 함께한 이화,
찬란한 축복의 시간

이혜숙

이대 명예교수(수학과 년 졸업)
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소장

2014년 2월, 수학과 교수로서 34년과 대학생활 4
년을 더한 38년을 이화에서 보내고 영광스럽게 졸업

제자들의
아야기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주영 (82년, 이대 환경공학과 연구교수)

며칠 후면, 이화의 동산에서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상큼한 봄의 향연을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했다. 돌이켜보니 아름다운 이화에서 귀한 만남들로 인하여 지난 시간이 내게는 친란한 38년이었다.

교수로 부임한 제자를 항상 존중해주며 신나게 교육하고 맘껏 연구할 수 있게 지지해 주신 수학과 은사님들 덕분에 이화는 내게 직장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놀이터였다. 여기서 반짝이는 수많은 제자들을 만났다. 이들과 함께 ‘수학’이라는 어렵지만 아름+다운 학문과 싸워했던 이화는 내게 평생의 배움터였다. 지금은 훌륭한 수학자로 성장해서 어느덧 한국 수학계를 이끌어가는 제자들 덕분에 참 행복하다. 또 수학을 공부했기에 곳곳에서 뛰어난 문제 해결사로 활약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자랑스럽다. 그런 제자들 덕분에 나의 배움터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

한때 수학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었으

나, 초대 연구처장으로 이화 연구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시도했던 것은 내게는 큰 배움이었다. 수학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학교 행정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내가 받았던 이화의 귀한 선물로, 이화는 항상 보다 크고 넓게 도전과제를 보고 해결하라고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러한 나의 도전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서 ‘수학을 즐겁게’라는 과제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화와 이화를 통한 모든 소중한 만남과 축복에 감사한다.

이화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캠퍼스에 면면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난 38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화를 떠난다.

올해는 봄의 설렘을 오롯이 즐길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아마도 그것은 그동안 수학과의 큰 스승님이셨던 이해숙 선생님을 이화의 동산에서 보내드려야 하는 서럽고 아쉬운 이별의 시간을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1980년의 어느 봄날로 기억하고 있다. 믿기는 어렵지만 벌써 약 33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캐나다에서 학위하신 선생님은 이화여대에 처음으로 부임하셨고, 1978년에 자연계열로 입학하여 전공별 지도교수가 없었던 78학번 우리 동기들의 첫 지도교수님이셨다. 선생님

의 연구실은 지금의 학생문화관 자리로 그 당시에는 이학관이라 불리던 콘크리트 건물의, 유리창도 없는 낡은 계단 아래의 골방으로 기억한다.

1980년 초반에는 대수학 시험을 매 학기마다 4번씩 시험을 치르고, 거의 매주 리포트를 제출하고 제출된 리포트는 빨간 펜으로 첨삭을 받았던 아픈 추억이 있다. 그래서 여성수학자이며 수학교육자들이 우리 동기 가운데서 유난히 많이 배출되었던 이유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화의 교정에서 수학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이해숙 선생님!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가슴 속에 앞으로 어떻게 사

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단아하면서도 청렴한 모습으로 직접 실천해 보여주셨던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을 이화의 교정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애달프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진한 그리움의 마음으로 하얀 머리가 잘 어울리는 깐깐한 대수학 선생님이신 이해숙 선생님을 영원도록 기억할 것이다.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선배교수로 19년 함께한 자랑스러운 은사님

이향숙 (86년,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

학부 때 뵈었던 이해숙 선생님은 언제나 학구적인 모습으로 항상 수학이 즐겁고 재밌는 학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열공하게 만드셨고 수학이라는 학문에 도전을 하게 하셨다.

당시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주 높은 선배님으로서, 역할모델이 되셨던 분이었다. 여성수학자로서 매우 우수하시고 훌륭한 학자이셨기에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궁지와 함께 매우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덕분에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동경하는 마음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아 나도 수학이라는 학문을 선택하여 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석사에서는 논문지도 교수님으로서 학문적 지도를 받은 것에 대하여 또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같은 과에서 선배교수님으로 19년을 함께 했다.

젊은 시절에는 수학자로써 열심히 사셨고 이제는

수학계 뿐 아니라 여성과학기술계,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고 계셔서 무엇을 하시든 항상 그 역할이 빛나고 중요한 성과를 내셔서 지나가신 자리가 크게 남는다.

정년퇴임을 마치시고 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소장님으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시니 한국과학기술계는 선생님으로 인해 상당 부분 더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단지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바이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룰모델인 선생님

임보해 (95년, 중앙대 수학과 교수)

학부, 대학원 석사과정 동안 크나큰 가르침과 공부의 동기를 주셨던 선생님, 학회와 세미나 등에 늘 챙겨 참여시켜 주셨던 선생님, 유학기간 동안에도 늘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 학자로서, 스승으로서의 지금까지의 선생님의 모습은 나에게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룰모델이다.

선생님께서 우리들 이대수학과 졸업생들은 물론 여성과학자들을 위해 애써 주신 덕분에 혜택 받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 선생님께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 선생님께서 벌써 은퇴를 하신다니 내게는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은퇴하신 후에도 선생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도해주실 것이라 믿고 오늘도 선생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하겠다고 다시 마음먹어 본다.

이해숙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왼쪽부터 민주영(82), 이향숙(86), 유진주(09, 賈迷怜鄉), 양호선(07학번, 박사과정) 동창, 이해숙 교수, 김은경(10), 김민경(84, 이대 초등교육과 교수), 임수민(12, 석사졸업), 노선숙(79, 이대 교수) 동창

선생님께 물려받은 책 볼 때마다 열공다짐

김은경 (10년, 이대 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선생님께서는 4학년 전공 수업을 하고 계셔서 입학 후 한동안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었지만, 학생회 활동을 하며 뵈었던 선생님은 굉장히 정확하시고, 유쾌하시며 학생들을 아껴주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4학년이 되어 드디어 선생님의 현대대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매 수업마다 선생님의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대수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되며 흥미를 갖게 되고 좋아하게

되었다. 수업을 들으며 교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학생들 중 한명이 되어 선생님께 공부와 진학에 대한 상담도 하게 되었고, 많은 충고와 지도도 받을 수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고 얼마 전 선생님의 정년퇴임 기념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던 연구실을 정리하며 선생님의 대수학, 암호론 책들을 물려받게 되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선생님께서 손수 나의 이름을 써주신 책을 볼 때마다 선생님을 기억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해숙 교수님!

섬세함과 끈기로 주방용품 수출업계 주도 대한상공회의소 최초의 여성 회장 이순선회장 (ALPS 제18기 수료)



안녕하십니까? 주방용품 전문생산 회사인 (주)성
창베네피나 이순선회장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
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 최초로 여성으로 용인상
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
장님은 이대 정책과학대학원의 제18기 이화여성
고위경영자 과정(ALPS)을 수료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회원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이유로
이화를 선택하셨는지요?

이화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여성대학이 아닙
니까? 그동안 사업하느라고 너무나 바빴는데, 회
사가 발전하여 안정을 찾을수록 학구적인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좀더 이론으로 체계화해서 급변하
는 현대 사회에 호흡을 맞추고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ALPS 과정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을 뵙니 조용하고 온화한 주부 같기만 한
데, 이렇게 편리하고 개성적인 주방용품을 생산하
고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업가라는 것이 믿
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처음에 어떤 동기로 주방
용품을 만드시게 되었는지요? 또 어떻게 이토록
큰 기업으로 발전시키셨는지요?

저는 22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나날이 성장하고 씁쓸이가 커지면서 경찰공무원인 남편의 월급으로는 교육비며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무엇을 해야 가계에 보탬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지요.

그 당시 음식점에 가면 고기 굽는 불판이 있었는데,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일을 깔고 굽곤 했지요. 호일이라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들어볼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는 육류구이 석쇠를 고안하여 주물 만드는 곳에 가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오십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될 것 같지도 않아서 남편이 반대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고 우선 10개를 만들어 판매해 보니 뜻밖에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0개 판돈으로 20개를 만들었어요. 20개가 50개, 100개로 늘어나고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아져서 혼자 판매하기가 벅차서 일당 삼만 원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고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생산하고 효과적인 세일즈 기법을 연구하며 동분서주하다 점점 주문이 많아져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주)성창베네피나는 내수는 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회사입니다. ‘베네피나’는 이탈리아 말로 편리하고 좋다는 뜻을 가졌지요. 1985년에 설립하여 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 본격적으로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창베네피나의 제품 소개와 30여년 동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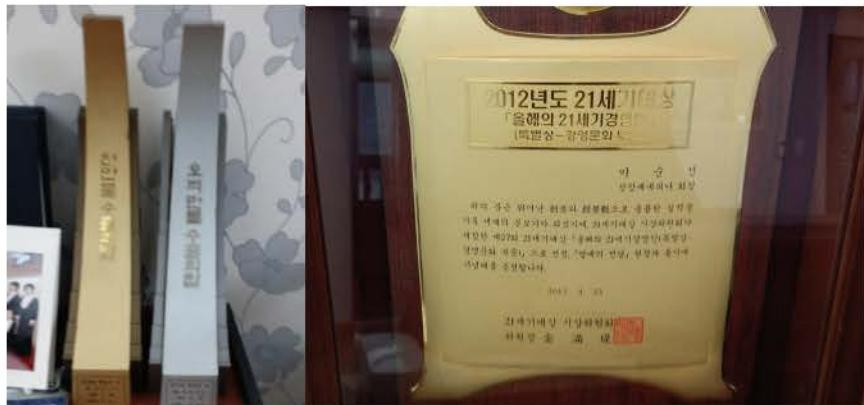
회사로 꾸준히 발전하시는 동안 기업철학은 무엇 인지요?

저의 경영 모토는 우선 제품을 잘 만드는 일입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내마모성이 뛰어나 주방용품으로 최고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작된 알루미늄 전자유도 용조리용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용도와 모양과 색상을 개발한 제품을 인정받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제아이디어 발명 신제품 전시회에서 ‘온도감응 표시 기능을 갖춘 손잡이’로 금상을 수상했고, ‘폐었다 불였다 할 수 있는 손잡이’로 러시아 연방교육 과학부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의 회사에는 50여 가지가 넘는 특허제품이 있습니다. 해마다 더욱 새롭게 발전하는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치열한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업철학은 ‘신뢰’입니다. 단돈 오십 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일본어 한 마디도 할 줄 몰랐던 제가 일본 바이어와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품에 대한 확신과 제 이름을 건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계약을 하





면 어떤 손해가 있더라고 철저하게 약속을 지킵니다. 금전관계에서도 단1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로 직결된다는 신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매월 25만개의 제품을 생산하며 주방용품 업계 최고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는 성장베네피나의 이순선 대표라는 이름이 외국 바이어들에게 신뢰의 척도로 작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성 CEO로서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요? 기업 경영 이외에 하시는 일이 있으신지요?

저는 여성은 언어감각이 뛰어나고, 사람을 중심으로 정도경영을 하고, 사물에 대한 공감능력 등이 남성보다 천부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치밀함을 살린 따뜻한 리더십에 도전과 열정, 추진력과 끈기를 더한다면 남성 못지않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재작년에는 제 8대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130년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역사 아래 여성

기업인이 회장에 오른 것은 제가 최초입니다.

저는 취임 후에 기존의 틀을 깨고, 파격적인 형식으로 신년회를 가졌습니다. 기업인, 근로자, 가족 등을 초대해서 음악회를 개최한 거지요. 제가 오랫동안 ALPS 합창단 회장을 한 인연으로 멋진 음악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용인 시장님을 비롯한 참석자들 모두 만족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일이라면 다문화 가정을 돋고, 8년 전부터는 ‘해비타트 집짓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구요, 작년부터는 홀로된 엄마들을 위한 ‘싱글맘 둑기’를 벌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패션쇼를 두 차례 갖고 수익금은 싱글맘을 위해서 후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봉사는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는 여성 리더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의 꿈을 지켜주는 것이 앞서 가는 저의 의무라는 생각으로 그 방면에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팔남매의 맏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구 효성여고를 나오고 나서 경찰 공무원인 남편과 곧장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학에 대한 미

련이 있어서 연간 매출 200억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면서도 틈틈이 중국 청하대학을 위시해서 여러 대학을 다녔습니다. 아들만 둘을 두었는데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현재 저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퇴임 후에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중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에서 딸, 아내, 엄마만의 역할론은 여성 스스로를 한계로 묶는 고질 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을 자각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간다면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ALPS에서 만난 친구들, 은사님들,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평소에 가고 싶어 하던 이화여성고위경영자과정에 입학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회원으로서 합창회, 골

프회 회장도 하고, 천육백여 명이나 되는 동창들의 총회장 직도 맡으면서 이화와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역시 이대는 시대에 앞서가고 자부심을 안겨 주며 저에게 활기와 용기를 주어서 무척 유익합니다. 모두들 너무 훌륭하신 회원님들과의 만남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ALPS가 더욱 발전하여 여성 CEO로서의 독특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보다 훌륭한 기업을 이끌어가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처음을 봤을 때 조용하고 연약한 듯하여 회장님의 어디에 기업을 맨손으로 일구고, 조직의 수장으로 지역 경제를 돌보고, 봉사를 천직으로 알며 쉴 새 없이 일하는 강인함이 있을까하고 무척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여성스러운 외모와는 달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올곧은 성품과 부지런함과 현명함과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긍심을 엿볼 수 있어서 존경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김선주/불문65, 한국소셜분과 회장,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순선 회장 가족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장 소경희 60여년 학과 역사상 첫 번째 타교 출신 여자 교수



2013년 9월 유럽교육학회(ECER) 참석, 터키 이스탄불

‘유망주’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분야에서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소경희 교수를 유망주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다. ‘발전될 가능’이 아닌 발전된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유망주’로 소경희 교수의 자질을 일찍이 알아본 분은 1980년대에 석사 지도교수이셨던 고 이귀윤 교수님이시다. 이귀윤 교수님은 동료 교수들에게 종종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했다고 한다.

“난 어떻게 해서라도 소경희를 키우려고 해요.
능력 있고 참 우수해요.”

그 말씀 뒤에는 소경희 교수의 능력과 노력, 열정과 인성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녹아 있음을 동료 교수들은 알 수 있었다. 나는 박사논문 지도교수로 소경희 선생을 만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같은 학문공동체 안에서 가까운 동료로 함께 일해 왔다.

소경희 교수는 이대 교육학과에서 학부와 석, 박사 과정을 마쳤다. 1996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조선대학교를 거쳐 2005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부임하였다. 부임



황규호

현재 이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과정학회장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학사, 석사),
런던대 King's College 박사

소경희

현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학과장),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교육학과(86), 이대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88), 미국 피츠버그 대
학 visiting scholar(93), 이대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96),
워스콘신 메디슨 대학 visiting scholar(2011~12)

당시 60여년의 학과 역사상 첫 번째 타교출신 여자 교수로 임용됨으로써 이후 여자교수의 임용을 늘려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3년에는 정교수승진과 함께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학과장직을 맡고 있다. 낮은 여자교수 비율이 한국의 대학 사회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경희 교수가 닦아온 길과 그가 보여준 역할은 후배 여성학자들에게 큰 레모델이 된다고 하겠다.

소경희 교수는 부임 이후 국내외 학술지와 학회에서 왕성하게 연구물을 발표해 왔으며 교육과정 분야의 정책 연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주요국의 핵심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실태 조사연구’가 교육부의 우수 정책연구보고서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학회의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서 연간 4회씩 발행되고 있는 학술지 발간의 전 과정을 주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연구>지를 SCOPUS에 등재하는데 필요한 편집 규정의 개정 과 흠페이지 개편 등 모든 절차를 주도해나가고 있다.

소경희 교수의 가장 큰 강점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없는 도전과 열정이다.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 대학 사회의 폐쇄성이나 남성 중심의 분위기를 넘어선 것도 그러하지만,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서면서 이론과 실제, 철학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 국내와 국제 연구 활동의 균형과 소통을 주도해 가고 있다.

소경희 교수의 도전과 열정은 128년간 이화가 걸어온 길이요 이화인의 정신을 집약해 주는 단어 이기도 하다. 최근 나아지곤 있지만 학문사회에서는 국내박사를, 여성박사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며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소 교수야말로 ‘이화교육’의 열매가 아니겠는가!

소 교수는 이미 유망주를 넘어 우뚝 솟아 있는 중견학자로 자랑스런 이화인이다. 한국의 교육과정 학계를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소경희 교수에게 큰 성원을 보낸다.

연극으로 문화화합 이루는 ‘나는 배우다’



연극배우

연극인복지재단이사장

대한민국예술원회원

진명여고,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극단 ‘자유’ 동인, 62년부터 현재까지 무대 활동

피의 결혼, 위기의 여자,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나는 너다, 오이더푸스, 신곡,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라, 페드라, 19 그리고 80 외출연

이해랑 연극상, 서울시문화상, 파라다이스상, 동아연극

상, 백상예술대상, 보관문화훈장 등 수상.

“2004년에 언론홍보영상학부로 명예졸업장을 받으셨으니 저보다 25년 후배시네요?”, “그것도 졸업식에 못 가고 나중에 신인령 총장님께 따로 받았어요. 3학년 때 동아방송 성우가 되는 바람에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됐거든요. 김갑순 문리대학장님을 찾아뵈었더니 ‘학교 마치고 하면 안 되느냐’ 하시길래, ‘지금 꼭 해야겠습니다.’ 했지요. 나의 길 먼저 택하겠다는 그 결단은 지금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언제라도 와, 다시 받아줄게.’ 하시던 김갑순 선생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네요.”

1950년 전쟁 한복판에서 아홉 살 박 동창은 극단 신협에 연구생으로 들어갔던 큰오빠를 따라 처음으로 연극 ‘원술왕’을 보며 무대가 자신의 우주가 되는 첫 경험을하게 된다.

“그날 공연을 떠올리면 지금도 소름이 오소소 끼칠 정도로, 연극이 내 운명이고 전부라는 걸 직감하게 된 거죠.” 연극부가 없었던 진명여중고에 진학한 박 동창은 대신 한국무용, 합창, 응변반에서 활약하며 배우의 기본을 다지게 되고, 이화여대 신문학과도 어쩐지 연극을 할 수 있을 거 같아 선택하게 된다.

“그 때 문리대 연극반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현구, 김갑순 교수님 같은 분들이 아끼고 지지해 주셨지요. 첫 무대였던 ‘페드라’는 명동에 있던 국립극장에 섰구요. 두 번째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은 당

시 최고 연출가 허규 선생님이 맡으셔서 막 개관했던 드라마 센터에서 공연했거든요. 동아일보에 ‘대학극이 기성연극을 위협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날 정도였으니 문리대 연극반 수준을 짐작 하시겠죠?”

1963년 동아방송이 개국하며, 박동창은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기 성우로 뽑히게 된다. “그 때 라디오 연속극의 인기는 최고였고 따라서 성우라는 직업은 정말 스타였지요. 사미자, 전원주, 김무생씨 등이 동기생들이었어요, 근데 미성을 선호하던 풍토에서 듣는 순간 귀에 꽂혀 절대 잊을 수 없는 제 목소리가 문제였어요.” 결국 박동창의 숨통을 트워준 건 이화여대 연극이었다. 김갑순 학장께서 학교를 그만둔 박 동창을 다시 불러 김정옥 연출의 ‘피의 결혼’ 무대에 세워준 것이다.

“전 어머니와 아기가 텃줄을 통해 이어지듯 이화여대와 제가 연극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명예졸업장을 받을 때도 신문학과 동창들이 함께 축하해주었고 항상 학교가 제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보살펴주고 있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아 신용카드조차 발급되기 힘든 연극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작년에 문화융성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문화소외지역을 위해 제 독특한 목소리로 낭독

콘서트를 마련해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첫 공연을 가졌어요. 앞으로도 낙도건 교도소건 불러주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서 공연을 할 생각이에요.” 낭독극 ‘영영이별 영이별’은 조선의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과 그의 비(妃) 정순왕후 이야기를 낭독과 영상, 라이브 연주로 재탄생 시켰으며, 문화체육관 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가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맞아 공동 기획했다. 공연진의 숫자가 적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기업이나 단체, 공동체 등지에서 함께 박 동창의 무대를 즐기며 문화로 하나 되는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올해는 11월에 작년에 호평 받아 재공연하는 단테의 ‘신곡’과 내년 초 ‘19 그리고 80’ 네번째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화동창들이 ‘19 그리고 80’의 너무나도 순수해서 19세 소년이 반했던 모드 할머니와 같은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여성들이 되면 좋겠어요. 어린 자녀나 손주들과 공연을 보며 문화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맘이 열린 어머니, 할머니가 된다면 세대 간의 갈등 그런 거 다 사라질 걸요.”

연극을 통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한다는 박 동창의 무대를 앞으로도 오랫동안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견승을 기도드린다.

글. 백수경(신방79, 이화동창편집위원)

기획르뽀

세계 최고 최초 지향, 우리 모교 이화여대 탐색 네 번째

이화의 얼굴, 이화 정신을 상징하는 이화웰컴센터

개교 이래 국내외 최고, 최초를 지향하는 우리 모교 이화의 다양한 건물과 시설들을 시리즈로 집중 탐색하는 난을 마련하였다.

이 난을 통해 동창들이 모교를 찾아 자주 발걸음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호에는 동창은 물론 국내외 방문객, 이화를 꿈꾸는 중고등학생과 지역주민 등 이화를 찾는 모든 방문자에게 이화의 얼굴로 홍보 창구의 역할을 하는 이화웰컴센터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2013년 5월 31일 이화 창립 127주년을 맞아 이화는 국내 대학 최초로 종합 방문자 센터인 홍보관 ‘이화웰컴센터(Ewha Welcome Center)’ 개관식을 가졌다.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이화웰컴센터는 동창은 물론이고, 국내외 방문객,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중고등학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화를 소개하는 총괄적이고 단일한 창구로서 캠퍼스 안내와 국내외 홍보의 공간이 되어 왔다.



“이화를 찾는 예비 이화인에게는 한 발짝 다가가는 이화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학교를 찾는 동문에게는 이화와 지속적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교육기관과 관계자들에게는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하는 소통의 ‘게이트웨이(gateway)’가 되고 방문객과 지역주민에게는 이화의 ‘프런트 도어(front door)’이자 이화의 브랜드 가치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홍보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김선옥 총장은 개관식에서 이화웰컴센터의 비전을 선포하였다.

2013년 하반기 국내외 방문객 1만4천5백 명

이화웰컴센터 개관 이후 지난해 하반기 방문객이 무려 1만4천5백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국외 방문객 나라별 순위는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대만 순으로 한자문화권, 중화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화웰컴센터에서는 외국인 및 일반인을 위한 웰컴투어를 상시 운영 중이다. 웰컴투어는 이화 역사와 함께 세계 최대 여자대학으로서의 캠퍼스 라이프를 소개하며, 선착순 현장접수로 운영된다.

이화웰컴센터의 캠퍼스 투어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표 참조).

웰컴 투어	일반 방문객 대상. 재학생 가이드 인솔. 이화의 이모저모 살펴보는 프로그램 센터 직접 방문해 현장등록 후 참여 가능
테마 투어	일반 방문객 대상. 재학생 가이드 인솔. 주제별 캠퍼스 탐방 역사 투어와 건축 투어: 매년 5월, 11월에 진행 센터 직접 방문해 현장등록 후 참여 가능
셀프 투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화 캠퍼스 탐방 센터에서 셀프 투어를 위한 가이드 맵 제공

센터 운영 시간: 월~토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각각의 투어에는 이화의 홍보대사인 이화캠퍼스리더와 재학생 가이드인 투어리더가 함께 안내를 맡고,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이화의 역사와 정신, 비전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기별 40명에 이르는 캠퍼스리더의 경우 매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한 학기 동안의 훈련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정식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때문에 이화사랑과 자부심이 각별할 뿐 아니라 탁월한 역량과 남다른 열정으로 캠퍼스 곳곳을 누비고 있다.

전국의 중고교에서 단체 캠퍼스 투어 이후 반응이 매우 뜨거운 것도 이들 덕분이라고 한다. 입학 후 선배가 될 이화홍보대사들을 직접 마주하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질문에 솔직하고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화의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가 예비 이화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모양이다.

실제로 투어리더에 감명 받아서 평소에 여자대학을 기피하던 실력 있는 여고생들이 이화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다는 투어 후기도 제법 많다고 홍보팀은 귀띔한다.

건축 설계 동창이 맡아 완성

이화웰컴센터는 정문 지하의 총면적 681.5m² 규모이며 내부는 안내데스크, 미디어·전시 공간, 포토존, 기념품점으로 나뉘어 있다. 건축 설계는 건축학과 1회 졸업생인 전숙희 동창이 맡아 완성했다. 이 중 미디어·전시 공간은 다시 ‘히스토리 갤러리’, ‘이화 인사이드’, ‘이화 영상’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센터 입구에서 안내데스크를 지나자마자 시작되는 히스토리 갤러리는 이화의 교명(校名), 교



훈, 교표를 소개하는 ‘이화 정신’, 시기별 이화의 역사를 동영상 모니터와 벽면 전시로 보여주는 ‘히스토리 월’, 이화의 현재와 미래를 통계와 지표로 보는 ‘이화 나우’로 꾸며져 있다.

이화 인사이드는 각 방면의 이화 출신 여성 1호, 글로벌 리더, 역대 총장을 소개하는 ‘이화 피플’,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소개하고 연구역량과 성과 등을 알리는 ‘이화 파워’, 아름다운 이화 캠퍼스의 사계절과 역사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16m 대형 와이드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는 ‘이화 영상’이 포함된다.

포토존에서 즉석 사진으로 추억 남기고

방문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아무래도 포토존이 아닐까 싶다. 이화웰컴센터 방문을 기념하고 추억하기 위한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촬영 후 그 자리에서 출력할 수도 있고(2천 원), 이메일(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기념사진 판매 수익금은 글로벌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기념품점에서 판매하는 음료 텁블러 등의 제품은 이화와 산학협력 결과 설립된 서울시에 비사회적기업 ‘오티스타’가 디자인한 상품이다. 자폐인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제작해 수익금은 모두 이들의 독립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한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이화를 알리고 자랑할 수 있는 멋진 공간, 이화웰컴센터가 탄생한 만큼 아직 그곳을 보지 못한 동창들은 봄기운 무르익은 이 때 이화 캠퍼스를 찾아보기를 기대해 본다.

글. 박경희(신방90, 이화동창 편집위원)

미국생활 30년, 아내 덕분에 ‘노래방 아저씨’ 되다

석창호

의사. 현재 미국 뉴욕에 거주
아내인 최성남은 약학과를 1970년에 졸업하고
부군을 따라 미국에 갔으며
2007년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도시에서 자란 우리 부부에게는 대학 시절은 마치 고향에 대한 향수처럼 다가온다. 아, 지금도 가슴 두근거리며 그녀가 나올 때를 기다리던 1960년대 말 이대 앞 풍경들이 눈에 선하다.

그 당시 의대생이던 나는 초등학교 때 보았던 그녀가 이대 약대에 다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되었고 6년 간의 연애 끝에 1972년 봄, 내가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하였다. 아내는 이대 약대 졸업 후 2년이나 기다려 주었다. 신혼의 꿈을 즐길 틈도 없이 시작된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1979년 미국 뉴욕에 있는 Jewish 병원 내과 인턴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내는 당시에 두 딸(6살, 4살)을 데리고 이민 가방을 밀고 당기며 3주 후에 Northwest 항공편으로 시카고를 통해 들어왔다.

미국에 도착한 지 5개월 후 병원에서 4주 휴가를 주었다.

아내는 운전도 서투른 나를 독촉하여 뉴헤븐과 보스톤으로 자동차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예일대학과 하바드대학을 어린 두 딸에게 보여 주겠다는 것 이었지만 아마 아내가 더 가보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뉴헤븐까지는 뉴욕에서 불과 1시간 반의 거리였다. 예일대학 정문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20~30분을 큰 대문을 찾다가 지나가는 학생에게 물어보았다. 예일대학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들은 지금 예일대학 안에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있는 대학들이 3~4백년 전에 개교하-



면서 대학이 생긴 후 그 주변에 대학 town이 형성되는 식으로 되서 정문이 따로 없다는 것도 모르고 이화여대 정문 통과하는 식으로 생각했던 지금 돌이켜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자동차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어린 두 딸을 깨워 구경한 예일대학은, 고색창연하면서 우아한 고딕 양식의 단과대학 건물들, 창문없이 6층 높이의 빛이 투과되는 대리석 벽으로 둘러싸인 도서관, 오래된 건물들로 둘러싸여 마치 성처럼 보이는 old campus의 잔디밭 등은 미국의 대학을 처음보는 우리에겐 새로운 감동이었다.

예일대학 구경 후 다시 보스톤으로 향한 우리는 캠브리지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학생들, 거리 악사들이 연주하는 Harvard Square, ‘하버드의 공부 별레’에서 본 것 같은 학생들의 분주함 등등은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시작한 미국 생활이 벌써 30년을 넘었다.

훗날 큰 딸 지영이 예일대, 둘째딸 지혜를 하버드에 입학시킨 아내의 선견지명은 김활란 박사님의 여성 교육의 열정이 녹아든 이화대학에서 비롯된 것 같다.

아내는 2007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을 맡게 되었다.

자연히 아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보게 되므로 이화여대 동창회 일은 나의 모교 일보다 더 소상하게 알게 되었다.

특색있는 인물, 재주있는 사람도 많고 남편들보다 협조를 하니 다른 어느 대학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당시 아내의 명령(?)으로 연례동창회 행사 기간동안 저녁마다 친교시간에 노래방을 맡게 되었다. 미국 호텔이라 노래방 시설이 없어 집에서 노래방 기구와 TV 모니터를 호텔로 운반하여 노래방을 차려 놓았는데 저녁마다 대 성황이었다.

신청곡을 받아 입력하고 마이크를 돌려주는 일을 맡았는데 이대 동창들이 나를 호텔 직원으로 알고 ‘노래방 아저씨’로 불러 마지막 파티까지 나는 ‘노래방 아저씨’로 알려졌다.

마지막 날 파티에서 아내 옆에 앉게 되어 ‘회장님 남편’으로 밝혀지게 된 에피소드도 있다.

지금도 이대 동창회에 가면 노래방 아저씨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이대 동창들이 많다.

일아두면 유익해요

수명 100세 시대 노인재활은 꼭 필요하다

이 원영

의학82, 경찰병원 재활의학과장

미국 SUNY, Rehab, visiting clinical Instructor 역임, 전 연세의료원 전공의, 전임의,
전 연세 원주의과대학 재활의학과장



우리나라의 수명도 이제 80세를 넘어가고 있다.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24.3%가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수명이 20~30년 늘어도 '골골 30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수명이 늘어도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삶의 의미가 무의미해질 수 있고,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은 폐를 끼칠 수가 있게 되어 한쪽에서는 수명연장의 꿈이 이뤄질 거라며 기뻐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100세 소크' 시대가 온다며 두려워하기도 한다.

젊은 환자 재활과 개념 다른 노인 재활

노인재활이란 질병 치료 후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100% 가깝게 끌어올리는 치료개념으로 이것은 완전한 치료를 의미한다. 또한 노인재활의 경우 일반 젊은 환자의 재활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환자의 기능적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자가 생각하는 목표와 참여의지, 그리고 가족의 기대치도 함께 생각해야 하고, 노화된 생리적 반응을 이해하고 습득해야 할 동작과 연관된 운동을 시키는데 운동프로그램은 될수록 단순화 해야만 소정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폐렴으로 오래 침상에 있던 환자가 폐렴이 완치됐다고 바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진 기능들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 환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치료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랜 침상 생활을 한 노인환자의 경우 근육약화와 관절 구축으로 혼자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되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빨리 기능이 떨어지는 곳이 근육과 관절부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육의 특성상 알맞은 운동을 통해서 생리학적으로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근육이기도 하다. 근육과 관절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활운동 치료가 필요한데 노인재활기구라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일반 헬스기구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활운동은 우리 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 있다는 점이 외형을 가꾸고 단련하는 일반 헬스 개념과 다르다. 그리고 처음에는 전문가의 정확한 기능평가 후 숙련된 치료사와 함께 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쇠증후군 있으면 재활 프로그램 참여 필수

그 외에 '노쇠증후군'처럼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인의 경우도 재활은 필요하다.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1년에 5kg 이상 빠진 경우, 팔걸이를 잡지 않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회 이상 계속 하기 어려운 경우, 또 1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체력이 저하됐다면 노쇠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특별한 질병은 없지만 삶이 무기력하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지고 2차 질병이 생길 위험도 높아진다. 80세 이상을 20년 동안 이런 상태로 산다고 가정해 보라. 이러한 삶은 진정한 삶이라고 말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목숨만 붙어있는 이런 상태로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노쇠증후군인 사람도 삶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맞춤운동 및 영양처방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적절한 재활프로그램은 손상 및 장기 침상 생활에 따른 부동증후군의 부작용인 관절 구축의 기능 회복 뿐만 아니라 주변 근육 및 관절 기능이 퇴보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회복시킴으로써 환자 본인의 독립된 삶의 영위를 통한 영질의 삶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노화되어 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요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실생활에 적용되려면 시간이 길리므로 우선 과학적으로 증명된 몇 가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재활의학적인 관점에서 알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또한 나이가 든 후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경제적인 쪽만 많이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종신연금이라든지 실비 보험, 암보험 등등.., 하지만 나이가 든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돈 보다는 건강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에 나이 들수록 공부 잘하는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중 건강한 사람이 가장 으뜸이라는 우스개 말도 있었을 정도로 건강은 중요한 관건이다.

생활법률 필요해요

가족 간 재산분쟁 해소 위해 ‘유류분 반환청구권’ 알기

이지은

법학, 법무법인 동서남북 구성원 변호사

KBS 법률자문변호사,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강남구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강동구정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한 평생을 화목하게 살아왔던 가족들임에도 가장이 사망하고 나서 재산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상속재산 분쟁 사건을 겪으면서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는데, 과연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남은 가족들 간의 후속 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다. 이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동창들 댁 내에는 더 이상 불필요한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증여나 유언 남기기 전 꼭 필요한 상식

대부분 가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균분상속(단, 배우자는 5할 가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증(遺贈,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한 경우에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다.

즉,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입장에서 민법이 정한 일정 비율의 재산(유류분)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법은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민법 제1112조 1항에 의하면 직계비속(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의 법정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을 남기기 전에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범위에 대해 확인해 보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한다면 남겨진 가족들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있어 유의할 점

유류분 반환청구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즉,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하므로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망인의 유지존중 및 거래 안전을 위하여 시일이 오래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둘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어디까지일까.

민법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시점에서의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상속재산+증여재산-상속채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 제3자에 대한 증여인지에 따라 그 산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즉,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에 산입될 '증여'에 대해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일 경우에 한정된다(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

다시 말하면 공동상속인일 경우에는 1년이란 기간의 제한 없이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됨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류분 반환 순서는 '유증' 재산에 대해 먼저 청구하여야 하고, 이것으로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증여'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학창 시절 강의를 듣던 중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쓰신다는 교수님을 뵙 적이 있다.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며 주위 사람이나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유언장을 쓸 때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보자. 유류분반환청구권! 그래야만 남겨진 가족들이 상속재산 분쟁 없이 진정으로 망인을 애도할 수 있지 않을까.



2014 신입동창환영회에서 장학금 수여 총 25명에게 전달

총동창회는 3월 8일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열린 신입 동창 환영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200여 명의 동창들과 지난 2월에 학위를 수여받은 2013년도 졸업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민주(대학원 기독교학과) 등 총 25명의 일반 대학원 및 대학 재학생에게 전달된 장학금 수여식에서 조종남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은 20여 만 이화공동체의 일원이 된 3500여 명의 신입 동창생께 축하드리는 즐거운 날로 이제 신입 회원들은 이화네트워크의 일원으로 국내외 어느 곳에나 여성의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동창으로 만날 수 있고, 필요시에 가르침을 받으며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되었다'면서 '총동창회 장학금을 전달받은 재학생도 더욱 학업에 정진하여 앞으로 훌륭한 동창으로 활동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하였다.



정기 임원회에서 2014년도 사업계획 논의
지난 2월 12일 2014년도 첫 정기 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추경 예산안과 사업계획 심의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의 및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3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준비할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2014년도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 3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와 금년에 처음 열리는 정보통신부 신설 기념 '제 1회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 대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총동

창회에서 모금하고 있는 '이화 글로벌 여성 교육 협회' 기금 모금의 성과를 점검하고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회를 6월 12일(예정)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동창회 기금 마련 소바자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3월 6일부터 8일까지 동창회관 (이화 삼성 교육문화회관 8층)에서 총동창회 기금 마련 소바자회가 열렸다. 봄맞이 의류와 속옷, 액세서리 등 동창들의 구매의욕을 높인 상품으로 총동창회



를 찾은 동창들과 총회에 참석한 동창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시 한번 이화와 동창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로 헌신의 마음을 다졌다.



선교부 소식

상반기 1박 2일 수련회 가져

지난 1월 14일부터 1박 2일 동안 필그림하우스(지구총교회 수양관)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선교부의 상반기 수련회가 있었다. 20여 명의 선교부원들(각 과 선교부장 및 회원)이 모인 이번 수련회는 첫째 날 김숙일(정외 85), 이수구 선교사 부부의 특강과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성만찬 예배와 2014년도 계획을 위한 회의 시간을 가졌으며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 다



2014년도 기도수첩 발간

해마다 새롭게 발간하는 '이화동창 선교사 기도수첩'이 간행되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락방전도협회 1층에서 열리는 기도모임과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배부되고 있다.

법과대학

회장/ 문미란(법학 80)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이화법조인회 개최

2월 17일 동창회관(이화삼성 교육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61회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환영회를 개최하였다. 약 90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장세리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정현미 교수의 기도와 문미란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석인선 교수 가모교소식을 전했다.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동창회 정회원 자격을 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법과대학 동창회 홈페이지 오픈을 알리고 그 내용을 시연하며 그간 발간해오던 '이화여대 법과대학 사람들' 을 갈음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을 전하기로 하였다. 이어 문 회장은 모교를 졸업하는 신



입 동창들이 동창회를 통해 모교 사랑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입동창들을 소개하고 환영의 말을 전하였다. 그리고 제5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신지원 동창을 비롯한 사법시험 합격 동창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였다.
한편 같은 날 저녁 6시 30분 이화법조인회는 2014



년도 이화법조인 정기총회 및 신임회원 환영식, 사법시험 합격생 축하연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후정 명예총장, 김선욱 총장, 전효숙 법학전문대학원장, 동창회 임원을 비롯한 귀빈 25명을 포함하여 노정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은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33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박은정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비롯한 140여명의 이화 출신 법조인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약학대학

회장/ 정용희(약학 75)

신년하례회에서 각 부서 사업계획 발표

2013년 12월 3일 역삼동 루안에서 정기임원회를 열고 새 임기가 시작된 정용희 회장의 신임 임원들이 결정되었다. 35명이 참석한 이번 임원회에서 정 회장은 서로 협조하면서 즐겁고 뜻있는 동창회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와 함께 임원 소개가 있었다.

약연후원회 위원장에 정준순(23회), 주홍장학회 위원장에 차영화(14회) 동창을 선출하고 작년 10월에 열린 제50회 정기총회에 대한 평가도 가졌다. 정준순 전 회장은 총회 결산보고와 약대건축기금에 3억 원을 후원한 고 박수현(15회) 동창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1월 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임원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다. 문화부 원의 신년 특송이 있은 후 정용희 회장은 약대 건축 기금 모금에 대한 감사와 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인사하였다.

신임 주홍장학회 위원과 약연후원회 위원의 소개와 각 부서의 신년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말띠 해를 맞아 말띠 회원들의 케익 커팅과 함께 서로 돌아가며 새해 덕담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가나다순으로재재



교육학과

회장/ 이계영(82)

신년모임 및 이화교육네트워크 정기총회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12월 정기모임을 7일 모교 ECC 321호에서 가졌다. '설치 의도와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정미경(79) 동창의 특강이 있었다. 정 동창은 꽃과 다양한 재료로 직접 장식했던 실제 예들을 영상과 함께 소개하며 크리스마스를 위한 장식 소품을 참석 동창들과 함께 만들게 하여 다시 한 번 이화 교육인의 유대감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1월 11일에는 이화의 교육학 전공자들이 함께 하는 신년모임 및 이화교육네트워크 정기총회가 ECC 321호에서 있었다. 교육학과 전체 동창(학부 및 대학원 교육학과와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교육 행정 전공)이 함께 하며 동시에 열려있는 새로운 성

격의 동창모임으로서 지난 2년 동안 매달 첫 토요일에 다양한 주제로 정기모임과 탐방을 해왔다.

전, 현직 교수와 동창 및 재학생들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전계획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어독문학과

회장/ 이정화(74)

2014년 첫 기 간사 모임 가져

2월 14일 베스트 웨스턴 강남호텔에서 기간사 모임을 갖고, 지난해 10월 독어독문학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됨을 축하하였다. 또한 새해를 맞아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에도 동창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는 뜻깊



은 시간을 가졌다.

섬유예술과 회장/ 김옥광(80) 새해맞이 선물로 풍성했던 총회

1월 10일 한우리 본점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김옥광 회장이 개회사와 김선희 선교부장의 기도를 시작으로 2013년도 동창회의 각종 행사 및 회계 보고, 블로그 보고가 있은 후 2014년도 행사 계획 소개를 하며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효범 탁지숙 이영숙 오복환 김혜순 윤귀영 장영란 김옥광 김혜경 이명희 이은실 배은미 김옥경 최윤영 서숙미 박애정 이현주 봉지희 전경화 조경은 전서윤 김선희 장수연 이상영 원윤경 동창 등이 참석한 이 날 이현주 2013년도 올해의 이화인이 애찬 제공과 새해맞이 선물을 마련하였으며 예미회에서는 총회 기념선물로 이화마크가 새겨진 교통카드 지갑을 준비하여 참석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한편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재미갤러리에서 현수회(회장/오복환)전이 열려 수원대 장영란 교수, 예미회 김옥광 회장, 장수연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자수를 중심으로 실크실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우아하고 화려한 조형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현수회전 참여작가는 이효범, 탁지숙, 김혜순, 오복환, 유경춘, 이상복, 김복희, 이명님, 고순희, 안미화, 홍영자, 강승희, 이은화 등이며 이 회를 지도하는 김인숙 동창의 작품이 특히 돋보였다.



생활미술과 회장/ 이혜경(82) 녹미회 총회에서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모금 지원 호소

2013년 12월 26일 서울클럽에서 가진 송년회에서는 하얗게 쏟아져 내리는 눈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한편 31주년을 맞이



한 ‘비주얼메시지’ 전이 2013년 12월 18일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열려 연말을 맞이한 다양한 Paper Bag을 선보여 관람객의 많은 눈길을 끌었다. 1월 17일에는 플로르델시엘로에서 ‘비주얼메시지’ 신구 임원들이 만나 원미진(88) 전 회장과 조장은(00) 총무 등 구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구 임원진은 김수진 회장, 김경주 이윤정 총무 등 새 임원

진의 2014년도 비주얼메시지를 기대하며 박수를 보냈다.

또한 2월 6일에는 동창회관(이화삼성 교육문화회관)에서 녹미회총회가 열렸다. 동창회 이해경 회장, 홍선기(96) 김나은(12) 총무, 박수진 교수(99) 등이 참석한 이 날 남은숙(80) 녹미회 회장은 ‘글로벌 여성 교육 허브기금’ 모금을 위한 미술대학 동창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였다.

영문학과

회장/ 김원정(75)

신년하례식 및 임원회의

2월 19일 한일관에서 원로 교수 및 고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신년하례식이 있었다. 새해를 맞아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에도 동창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원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영어교육과

회장/ 이미옥(79)

50주년 행사 앞둔 걷기운동, 연날리기 행사

매월 셋째 토요일에 열리는 걷기운동 '50킬로 고고' 3회째 행사를 지난 2월 15일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로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5킬로 정도 걷기행사를 가졌다. 몽촌토성 산마루에 올라서는 동창들의 염원을 담은 연날리기 이벤트 행사도 하였다. 각각의 연에는 '축 영교과 50년, 100년을 향하여' '자랑스런 영교인이여, 영원하라' 등 특별한 메시지를 실은 연들이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았다.

행사 후 콩나물국밥으로 늦은 아침식사를 하면서 동창들 간의 우의를 다졌다.

조소과

회장/ 고원경(77)

이화조각회 정기총회

2월 26일 예술의 전당에서 조소과 동창회 및 이화

조각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이날은 특히 신구 회장단의 이 취임식이 이루어져 이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신임 회장에 고원경(혜숙)(77), 수석부회장에 이선화(81) 동창이 선임되어 새로운 임원진들을 소개하였고 앞으로 2년간 조소과 동창회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 해외
지회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남가주지회

회장/ 장계원(도서 76)

동창회 창립 60주년 기념 한마음 한마당 잔치

2013년 12월 8일 정기총회 및 연말파티가 쉐라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정기총회는 장계원 동창 사회와 이수훈(화학 59)목사의 기도로 시작하여 회장 환영인사, 회계의 재정보고, 두 명의 대학생에게 각각 1000달러가 지급되는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어서 신임 회장, 이사장 인준발표 후 장계원 신임 회장과 김주경(관현77) 이사장의 인사말, 모교 하계 학교에 장학생으로 참석한 바 있는 Janet Linares(C.S.U.L)의 감사 인사가 있은 후 박화자 이사장에게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2부에는 김영란(영교 78) 동창의 사회로 특별 초청된 최윤석 씨의 Ocarina와 피아노 연주, 동창합창단(지휘 장진영, 반주 문성희)의 합창이 있었으며 3부는 한나리(체육 92) 동창의 사회로 남가주동창회 창

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한마음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떡을 떼며’라는 주제 아래 3층짜리 떡 케이크에 촛불이 점화되고, 노래, 율동, 게임,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이 자리에 참여한 150여 명의 동문들과 배우자들은 한껏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월 29일에는 세븐tm 홈 카페에서 2년 동안의 임기를 끝내는 김정순 회장단의 마지막 임원회가 열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국제재단을 통하여 4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대학원졸업자 본 동창회 정식회원 인정 등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3월 24일 예정인 골프대회 토의와 2013년에 개정된 모교 총동창회의 회칙이 소개되었다.

2월 20일에는 장계원회장이 이끌어갈 2014년 첫 번째 임원회가 회장 자택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신구 회장, 이사장 등 3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2014년 연중행사에 관해 논의하였다. 특히 3월 24일



제11회 총장배 골프대회, 5월 18일 제 10회 정기합창연주회에 관해 자세하게 토의했다. 또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모임을 이끌어갈 리더 선정, 을해개신되는 동창 주소록을 위해 신입회원 확보, 동창들의 주소 이메일 연락처 재확인, 국제재단과 동창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또한 동창회 산하의 소그룹인 각 부의 활동 등에 관하여 의논했다.

뉴욕지회

회장/ 박문순(사학 66)

확대 임원회에서 연례만찬 품평회

2013년 12월 6일 플러싱 소재 삼원각 식당에서 연례만찬 품평회 겸 파티로 확대 임원회를 가졌다. 이 날 창립자인 김광희(화학 67) 동창의 뒤를 이어 KAFSC(가정상담소) 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윤정숙(사회 03) 동창이 5월 1일 예정인 가정을 주제로 뉴욕 뉴저지 지역의 저소득층 초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대회 개최를 위한 VIP 리셉션과 Press Release를 맨해튼 소호지역에서 가졌다.



몬트리올지회

회장/ 이채화(무용 76)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지회 만들터

2013년도 송년모임을 12월 1일 동창 및 가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희준(수학 84) 동창 자택에서 이채화 회장 주관으로 열렸다. 새롭게 입회한 황선혜(피아노 85), 김정아(피아노 85), 박영실(화학 89) 동창이 참석하여 더욱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박정자(화학 62) 동창은 몬트리올지회를 통해 이민 생활 가운데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편안한 모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하였다. 이 날 지회는 지회 발전을 위한 박복길(교육 60) 동창의 기부금을 감사히 받았다.



밴쿠버지회

회장/ 최정순(정외 71)

연합과 사랑 다짐한 신년모임

2013년 5차례의 모임에 이어 지난 2월 8일 최정순(정외 71) 회장 자택에서 35명이 모인 가운데 2014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의논하며 연합과 사랑을 다짐하



였다.

이 날 더욱 뜻 깊은 일은 캐나다 뮤즈한국교향악단 상임 지휘자인 박혜정(관현 82)동창 지휘와 반주자 손수희(피아노 66)동창의 교가와 아리랑, 찬양곡 연주가 있어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밴쿠버 지회는 한인회장을 역임한 오유순(약학 69), 밴쿠버 한국일보사장 강은실(조소 87), 문인협회 김영주시 인(국문 63), 골프프로 최현숙(영문 83), 무궁화재단 이사장 이인순(건강교육 70), 성악가 방장연(성악 85), 기도모임회장 김아자(기독 64) 동창등을 비롯한 교회와 지역사회봉사 동창들이 많이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만들며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보스톤지회

회장/ 이문희(작곡 77)

새 임원진 출범과 함께 발전, 결속 다져

2월 28일 newton에서 동창회를 열고 새 회장에 이문희(작곡 77)동창, 부회장에 박순혜(국문 73)동창을 선출하였다.

특히 1회 졸업생인 김지수(약학 49) 대선배께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모두에게 힘이 되었으며 앞으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화인선교사 및 선교비 후원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수여, 좋은 강사 초빙으로 강연 마련 등 다양한 모임을 가질 것에 뜻을 모았다. 또한 모임 홍보에도 적극 힘써서 많은 동창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기금 조성에도 주력하자는 의견도 호응도가 높아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북기주지회

회장/ 제갈숙경(관현악 79)

지역 봉사로 명망 높은 24대 신임 회장 선출

3월 1일 정기총회에서 제 24대 회장으로 제갈숙경(관현악 79) 동창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전체

회원의 지지를 받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북가주지회를 이끌어 나가게 될 신임회장은 지회에서 부회장, 회계, 총무로서 오랫동안 봉사해오며 지난 수년간 북미주지회 연합회에도 후원이사로 많은 협조를 해왔다. 그 밖에도 북가주지역의 봉사단체 및 예술문화계 활동에도 많은 지원을 하며 한인사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세인트루이스지회

회장/ 정선주(성악 68)

진선미 모임 통해 이화의 정 나눠

작년에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에 지회에서 처음으로 최경선(영문 61), 최길자(화학 65), 정선주(성악 68), 양혜자(교육심리 74) 동창 등 4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회에서는 매달 진선미 모임 통해서 이화의 정을 쌓고 있으며 2월 모임은 최경선 동창 자택에서 이수자(가정63), 한정자(교육 63), 정선주(성악68), 양혜자, 김혜영, 이명아(음악 90) 등 7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작년 12월 대외협력처에서 보내온 '선배라면' 을 함께 먹으며 아름다운 이화의 정을 나눴다.



시드니지회

회장/ 황혜자(교공 76)

새해 첫 소풍으로 즐거운 시간 가져

크리스마스파티 겸 송년회로 2013년 12월 6일 린필드에 거주하는 김봉희(서양화 74) 동창 자택에서 23명의 선후배가 모여서 일년 동안의 다사다난한 얘기 를 나누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1월 29일에는 Cockatoo Island로 12명의 동창들이 첫 소풍을 갔으며 그동안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영근(사생 78) 박제향(과교 76) 동창이 참석하여 정기모임 시 인사만 간단히 나누던 선후배들과 허심탄회하게 이민 생활 얘기도 나누고, 오랜만에 햇볕도 쬐고, 삽겹살 바베큐도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싱가포르지회

회장/ 현수정(생미 84)

동창 손맛 담긴 신년맞이 모임

갑오년 말띠 해의 첫 모임이 박현(정외 84) 동창의 자택에서 있었다.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



의 하이라이트는 동창들의 손맛이 듬뿍 담긴 음식으로 채워진 패티 런치로 참석한 23명의 동창 수만큼 다채로웠다. 다양한 음식의 향연 속에서 홍겨운 웃놀이와 정다운 이야기로 2014년 새해를 열며 이화동창이라는 소속감에 행복을 맛보았다.

아틀란타지회

회장/ 김정희(약학 79)

2015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앞두고 다양한 신년계획 논의

2013년 12월 8일 스프링홀에서 송년파티를 개최하

였다. 96명의 이화가족들이 참석하여 1부 개회식, 2부 공연 및 장기자랑, 3부 댄스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만찬 후 2부 순서에서는 독창(송미애), 무용(박연희), 피아노 연주(윤미영), 이화여대동창회 합창단 합창, 장기자랑, 푸짐한 경품 추첨 등이 있었고 이번 행사의 주제인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raffle 티켓 판매 전액을 한인회 폐밀리센터, 한인 상조회, 디딤돌 선교회, BMS(해외봉사단체)에 기부하였다.

1월 12일 서라벌식당에서 가진 새해모임에서는 신년 계획으로 6월 야유회, 가을 총장배 골프대회, 10월 ~11월 샌프란시스코총회 참석, 12월 총회를 계획했으며 새 주소록 발간과 선교부 발족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2015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준비모임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며, 재정을 총회 준비와 모교 발전 기금 및 국제재단 장학기금에 주력을 두기로 했다.

이 날 새 회원으로 참석한 정명수, 송신흥, 김아자(의학 63), 홍영자(사회 61) 동창의 환영과 오랜만에





참석한 유복렬(부총영사) 동창의 인사가 있었다.

1월 16일 지회 회원 중 최고령인 정준희(문과 41) 동창을 방문하여 10년 동안 매달 방문하는 이원옥, 황경임 동창과 함께 동창회 소식을 나누고, 수선화 화분과 기념품가방, 생일선물을 전달하였다.

1월 19일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손운산목사(전 이대 교목)의 좋은 말씀과 함께 동창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2월 9일 모임에서는 김순희(법학 66)동창을 회장으로 이대 선교회를 만들고 김아자(의학 63)동창의 '난 기르기'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신입 회원인 차희숙(체육 77)동창을 환영하며 구정맞이 웃놀이를 하였다.

오레곤 포틀랜드지회

회장/

적극적인 동창 찾기와 총동창회에 도움 되길

2013년 12월 16일 일기불순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2명의 신입회원이 참석한 모임에서 윤경은(기악 82) 동창은 가게 때문에 동창회에 참석을 못하다가 12년 만에 받아보는 빨간 동창수첩과 교정 달력을 받아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반가워하였다. 송원섭(과교 87)동창역시 막내로 선배 동창들의 사랑을 득차지했다.

그동안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지만 '숨은 동창 찾기' 목적으로 신문 광고를 향 것을 올해도 또다시 시도해 보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14년 안건으로 총동창회 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견 일치와 더불어 새로운 동창 찾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데 모두 동의하였다.

이 날 참석자는 김미진(79) 박평화(68) 박상주(63) 손영의(72) 최민희(63) 정행자(68) 송영섭(87) 허구희(80) 신귀현(68) 김민자(64) 동창들이다.

올랜도지회

회장/ 신 해(섬예 92)

공공건물 섬유설치작업 전시회 관람

3월 7일 지회 회원 18명이 샌포드 웰컴 센터(Sanford Welcome Center)에서 전시 중인 공공건물 섬유설치작업을 관람하고 전시를 한 신혜 동창을 축하하였다. 이번 전시는 지회장인 신 동창이 유나이티드아트 오브 센트럴 플로리다(United Arts of Central Florida)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완성한 100년 된 공공건물에 민들레 흘씨를 연상시키는 섬유조형물 45점을 설치 전시한 것으로 전시 일정은 1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다.



워싱턴지회

회장/ 김지완(도서 89)

새 임원진 출발과 함께 교육 및 재정 세미나 열어

2013년 12월 1일 연말 정기총회 및 크리스마스 파티를 장경희(수학 70)동창이 운영하는 우래옥에서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활동 및 회계 보고 등이 있었으며 김지완(도서 89) 부회장의 회장 인준이 있었다. 제 40대 김지완 신임회장은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때 보여준 지회 동창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동창들이 이화를 자랑으로 여기며 섬기기를 자처 할 수 있는 동창회로 지속해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여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 날 이사회에서도 2013년도 제반 활동 및 회계보고가 있은 후 제37대 지회장이었던 이영주(간호 72) 동창이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1월 24일 김지완 회장 자택에서 가진 임원회 및 이사회에는 40명의 동창들이 모여 2014년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였고 특히 새로운 웹사이트의 개통을 알렸다. 젊은 동창들의 적극적인 동창회 참여 권장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2월 7일 우래옥에서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동창들을 위한 교육 세미나로 허혜경(교육 88, 교육상담가) 동창을 초빙, 대학 진학에 대한 특강을 하게 하였다. 2월 21일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재정 세미나를 열고 손옥윤(사학 85, CPA, CFP) 강사의 미국세법, 자산관리 및 은퇴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계획에 대한 특강으로 참석 동창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탈리아지회

회장/ 정희숙(국문 60)

새해 맞이 첫 정기모임에서 환영회 개최



1월 24일 정기모임에서는 작년 6월 30일에 부임한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18대 배재현 대사부인 인 곽혜정(영문 80) 동창 환영회를 가졌다. 새해를 맞아 함께 떡국을 먹으며 동창들의 소식과 학교 소식을 나누었다. 이 날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회보와 수첩, 달력 등도 배부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적은 회원이지만 일 년에 정기적으로 3~4차례 모임을 갖고 있다.

홍콩지회

회장/ 정도경(사회복지 81)
지회와 함께 축하 기쁨 나누며

2월 13일 홍콩한인회 제 48대 회장직을 맡게된 이명희(무용 68) 동창 부군인 최영우 회장의 당선을 자축하는 모임을 '퍼시픽 클럽'에서 가졌다. 3월 13일에는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급 한식당 '아리랑'을 운영하는 장은명(영문 69입) 동창이 회원들에게 점심 대접을 하는 모임을 가졌다.



휴스턴지회

회장/ 백화정
노인회 떡국 대접 행사로 시작한 2014년



2013년 12월 모임을 이영일(의직 72) 동창 댁에서 연말파티를 겸해 가졌다. 풍성한 음식과 즐거운 게임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였다.

2014년의 첫 모임은 구정 설날, 한인 노인들에게 떡국을 대접하며 시작하고 노인회에서 거행된 잔치에는 30명 가까운 동창들이 참석하여 떡국, 잡채, 나물, 전류 등의 음식을 노인 150여 명에게 대접하였다. 연례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이 모임은 지회에서 가장 각별하게 준비하는 모임의 하나이다. 2월 모임은 한은주(영문 82) 동창 자택에서 32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양 과기대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문영자(영문 67) 동창이 평양에서 보고 느끼고 온 내용을 전해준 값진 시간이었다.



졸업 연도순 게재

김태련(심리 60)

이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아이코리아 김태련 회장이 장애우와 비장애인가 1대 1의 친구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는 매개체의 하나로 2013년 12월 30일 '베스트버디스 코리아 후원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 14일에는 북경에서 북경 주중한국문화원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남후남(약학 62)

2013년 12월 3일 PC USA(미국장로교단) 소속 동부한미 노회의 첫 여성장로로 남 동창이 16대 노회장에 취임하였다.

이강원(신방 70)

세계장신구박물관관장인 이 동창이 1월 13일~20일 까지 두뇌스포츠의 하나인 Hawaii Bridge Tournament에 한국대표로 참가해 우승했다. 이 동창은 지난해 Art Jewelry 특별 전인 Beyond Liaison 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다.

강승애(서양 72)

3월 19일~25일 서울 인사동 선화랑에서 생명과 사랑을 주제로 한 17번 째 개인전을 열었다.

이희숙(신방 72)

핀란드 헬싱키에 거주하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의 임원인 이 동창이 '스칸디나비아 예술사(이담북스)'를 출간했다. 이 동창은 이미 '나의 스칸디나비아', '세계를 감동시킨 스칸디나비아 디자이너 37'를 발간한 바 있다.

전길자(화학 76)

2013년 12월 18일 이대 교수인 전 동창이 2013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 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한국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여성과학기술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영란A(생미 79)

2월 25일~3월 16일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횃불기념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임정희(가관 79)

2월 2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창간 20주년을 맞은 시민일보가 제 2 창간을 목표로 도약하기 위해 전 여성신문사 대표를 역임한 임 동창을 신임 사장으로 추대하여 취임식을 가졌다.

민무숙(영문 81)

2월 10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 인력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한 이 동창이 임명되었다.

김성미(영문 82)

1월 14일 IBK기업은행 정기인사에서 남중부지역본부장인 김 동창이 부행장에 해당하는 본부 조사역으로 승진하였다.

양옥경(영문 82)

2월 24일 이대 대외협력처장인 양 동창이 길림사범대학 명예교수로 위촉되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한 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양 교수는 연 1~2회 길림사범대학에서 특강을 진행하며 향후 이 대와의 MOU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정희(정외 83)

국회의원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 동창이 2월 17일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직을 맡았다.

남연숙(도예 86)

2014년 12월 신축, 오픈하는 팝 박물관 프로젝트에 10명의 local artist에 선정되었으며 1월 26일~2월 1일 Agana 쇼핑 센터에서 팝, 필리핀 아티스트 주최 아트쇼에 'Image -3' 주제로 전시회를 가졌다.

이선기(식영 86)

3월 13일 전자신문인터넷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온라인신문협회 이사를 역임한 이 동창이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손지영(약학 91)

한국로슈 항암제사업부 부서장이었던 손 동창이 3월 1일 로슈그룹 스위스 본사 글로벌제품 전략부서 성숙기 제품 인터내셔널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리더로 임명되어 전 세계 해당 품목들의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김지은(과교 92)

1월 28일 롯데백화점 해외패션부문장인 김 동창이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다. 2010년 롯데그룹이 첫 여성임원을 영입한 이후 두 번째이다.

이희준(약학 92)

1월 13일 (재)명동 정동 극장장의 2013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 대본공모전에서 '던웨이비트'로 뮤지컬대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정진숙(생미 93), 조장은(생미 00)

1월 20일~ 27일 청담동 L'espace에서 함께 Trivia 전을 열었다. 정 동창은 십이간지의 특징들을 재미있게 표현한 작품을 선보였고, 조 동창은 페루의 마추픽추, 중국의 만리장성, 로마의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할 등의 이미지를 을 표현하였다.

김양선(생미 94)

개인전을 2013년 11월 4일~12월 7일까지 미+N 갤러리에서 열었다.

조은희(생미 94)

북창동 신신훈텔에서 2013년 11월 23일~ 2014년 2 월 28일까지 eCho Art Project 개인전을 열었다.

손은정 (교육 97)

법무법인(유)율촌에서 캐나다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손 동창이 최근 Senior Professional으로 승진하였다.

홍은아(체육 03)

3월 3일 여자축구 국제심판이었으며 대한축구협회 이사인 홍 동창이 이대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과 조 교수로 임용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김자인(조소 12)

2월 5일~ 2월 17일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 갤러리에서 부친인 김시영, 동생 김경인 씨와 함께 '흑유명가 가평요전- 겸은 달항아리와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2014학년도 입학식 개최 신입생 3,456명 맞이

2월 28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2014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3,456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김선욱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128년의 역사 속에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최초’ 그리고 ‘최고’의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해 온 우리 이화 공동체가 여러분의 잠재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최대화 시켜주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입학생들을 환영했다.

이어 남성교수중창단의 축가 및 이화브라스앙상블의 축주가 펼쳐졌다. 특히 ‘백설공주와 오빠들’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본교 남성교수중창단은 엑소(EXO)의 으르렁을 개사한 공연 등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해 학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신입생 선서는 스크랜튼 대학에 입학하는 최우수 장학생 남보라 학생과 중국 길림성 출신으로 인문과학

대학에 입학하는 최려나(Cui Lina) 학생이 대표로 선서했다. EGPP(이화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 대표로 신입생 선서를 맡은 최려나 학생은 11살 때 불의 사고로 전신 95%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10년간 30번의 피부이식 수술을 받으면서도 모교 진학을 목표로 꾸준히 공부한 끝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해 꿈을 이루었다.

입학식 직후에는 학생처에서 마련한 신입생을 위한 환영 행사인 'Welcome to Ewha'가 이어졌다. KBS 박은영 아나운서(무용 05)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재학생들이 게스트로 나와 새내기들에게 선배들의 학교 생활 노하우를 전수했다. 특히 저서 '지선아 사랑해' 등으로 친한 감동을 선사한 이지선(유교 01) 동창이 특별게스트로 등장해 “타인과 나를 비교해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화 안에서 많은 것을 누려라”고 격려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는 새내기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전했다.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40명 외국인 포함 총 3,510명 졸업생 배출

2월 24일 대강당에서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2,243명, 석사 1,145명, 박사 122명 등 총 3,5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선옥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오늘 수여받는 학위는 여러분이 그간 쏟아부은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난관과 고비를 헤치고, 빛나는 결실을 맺는 여러분은 이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지성인으로 사회에 나서는 것”이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졸업생 중에는 만 20세로 학사모를 쓰는 변하영(전자공학전공·10학번) 동창이 최연소 졸업의 기쁨을 안았다. 변동창은 과학교등학교 출신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꾸준히 과학 분야 진출을 목표로 공부한 끝에 남들보다 2년 먼저 ‘미래과학자전형’을 통해 입학을 했다. 재학 중에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은 수재로 8학기를 모두 마치고, 동대학원 전자

공학과에 입학해 연구자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졸업식 최우수 졸업자는 각 단과대학별로 1명씩 총 10명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윤혜미(영문 08학번), 양지원(생명과학 10학번) 동창이 학점 4.3 만점에 나란히 4.28점을 받으며 가장 높은 학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러시아, 싱가포르, 일본, 중국, 캄보디아, 콩고 등 총 40명의 외국 학생들이 학부 졸업장을 받았다.

제5회 EGEП 프로그램 2주 동안 개최 ‘변화를 만드는 여성연대’ 등 다양한 일정

모교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비정부 공익부문에서 활동하는 여성인재 양성 과정인 ‘제5기 이화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EGEP, 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을 1월 15일부터 2주간 진행했다. 프로그램의 시작인 ‘EGEP 오픈포럼’은 ‘변화를 만드는 여성연대’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이를 비롯해 여성 리더십, 여성 건강 등의 주제별 강의, 액션 플랜, 현장 활동 등의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EGEП에서는 특별히 Action Day with UN Women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UN Women의 위니 쿠수마씨와 전문 트레이너인 이날라 파티마트씨를 초청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아시아-아프리카 각국의 여성 성폭력(이브티징, 명예살인, 여성 음핵절제 등)을 근절하기 위한 각 사회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구촌의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전략을 모색하는 워크샵도 진행됐다. 강의와





함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별 여성운동과 한국 여성운동 간 연계를 위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여성 미래센터 등의 국내 여성 NGO도 방문했다. 1월 24 일(금) ECC 이삼봉홀에서는 2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이 개최되었다.

김선옥 총장은 참가자들이 제5기 EGEP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며 “이화에서 EGEP를 통해 여러분이 얻은 자양분을 바탕으로 미래 여성 리더로서 이화와 함께 교육을 통한 여성해방과 사회변화를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GEP는 비정부기구 여성 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된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으로 2012년 1월 처음 시작된 이래 이번 5기를 포함해 33개국 총 100여명의 여성활동가를 배출했다. EGEP 출신 여성들의 활약에 힘입어 매년 참가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5기의 경우 참가경쟁은 10:1 을 기록한 바 있다. 명실상부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여성 활동가들의 배움터이자 네트워크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화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 개최

대학 최초로 졸업생과 재학생 단원으로 구성

이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성기선 교수)가 지난 3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김선옥 총장을 비롯 이화의 교직원과 재학생, 이화가족, 일반 청중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김순애의 ‘그대 있음에’ 외에도 ‘피아노협주곡 G장조 와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 제7번 A장조 Op.92’를 선보여, 이번 연주회의 주제인 ‘낭만과 열정’을 선율에 담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바리톤 김학준 씨와 현재 파리고등국립음악원(CNSM de Paris)의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에르베 비요(Herve Billaut)의 협연으로 청중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이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음악대학 졸업생과 재학생 단원으로 구성된 상설 오케스트라로, 2013년 1월 창단과 함께 국내 음악계에 신선한 화제를 일으키며 대학 연주사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신청서

총동창회에서 모금하고 있는 '이화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아래 약정서에 동창 여러분의 뜨거운 '이화사랑'을 담아 총동창회 팩스 02-393-914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기관 · 단체 정보

성명(상호명) <input type="checkbox"/> 익명 희망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본교 관계	<input type="checkbox"/> 동창 전공:		입학/졸업년도
	<input type="checkbox"/> 학부모자녀 전공:		입학/졸업년도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대학/처	과
	<input type="checkbox"/> 기업/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락처	우편물 수령 주소(주택 / 직장)		
	전화(주택):		(직장):
	E-mail:		휴대전화:
직장정보	직장명:	소속:	직위:

약정정보

약정금액	일금		월()
기부용도	<input type="checkbox"/> 글로벌여성교육허브기금 ()		<input type="checkbox"/> 이화 캠퍼스마스터플랜기금 ()
	<input type="checkbox"/> 이화장학기금 ()		<input type="checkbox"/> 기타 후원 용도 ()

납부방법

일시납	년 월 일	신한 140-001-081822 (예금주: 이화학당)	외환 048-22-01036-4 (예금주: 이화학당)	우리 107-04-102624 (예금주: 이화학당)	
분납	납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회)	월분납액:	원	
	납부 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input type="checkbox"/> 교직원급여공제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전액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면 상단 익명 희망에 체크해 주세요.

▣ 정보동의: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에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관리용 도로만 사용됩니다.

※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Tel.(02)3277-2926, 2927, 3975 E-mail ewha21@ewha.ac.kr

신입동창 명단

학위수여식에서 학위를 받으신 여러분의 축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내신 입회비는 총동창회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입회비를 납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총동창회에 입회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전공

강경은 강소희 구혜인 김민선 김보련
김성원 김수지 김아진 김유경 김장희
김정연 김정윤 김지선 김지수 김지은
김지현 김한림 김현아 김화윤 노유정
라일락 맹서현 문이슬 박나원 박누리
박문영 박소라 박소연 박소은 박유진
박주희 박한울 박혜림 백선영 백혜진
서심지 서정선 손승희 신지현 심민선
안민희 안자은 유수정 유수현 유승희
이고경 이승연 이지연 이지현 이향진
이효경 장보경 장소원 장정윤 전하경
정소희 정은혜 조영선 주희경 최서희
한지수 한지이 GAO YUAN FANG LI
JING LUO YING Rous Sothy YAN
YANAN 류지영 박가연 정유진

중어중문학전공

강민주 김나연 김다은 김현정 김현진
남희정 박상미 박 샘 박애준 박지연
박현지 배민정 배수현 손은별 손지선
손효진 신지현 유하정 윤지연 이경민
이경연 이벼리 이선주 이성아 이수정
이예빈 이지연 이지영 이현주 이해령
전하영 정세미 정유나 조민경 하명진
홍예빈 윤초희 조수빈

영어영문학전공

고효선 권진영 김가현 김나래 김리현

김민지 김세진 김송이 김여정 김예원
김윤희 김의진 김지선 김지승 김지현
김 진 김현용 김현주 김희은 김희조
박세라 박재원 박주현 백인영 서 려
소다은 손지현 송규리 송자인 신유진
신정욱 신희진 심세리 심예지 안정민
안정아 우미연 우주현 유은영 윤민희
윤혜미 이소흔 이슬이 이언주 이운정
이유지 이윤경 이정민 이정수 이주연
이주윤 이지윤 이효준 장상은 장의영
장인주 전하연 전혜인 정서윤 정아라
정우영 조미현 조진경 조희진 주현정
진가형 최다솔 최리나 추가희 한민주
한보람 하수정 현재은 흥윤하 강호연
김수현 김태은 김한샘 김현정 김후연
박수현 이미진 이시은 이은표 이진영
임은지 장지원 정범준 천현진 최지원

불어불문학전공

곽지연 김선엽 김선우 김슬기 김조희
김지원 김지현 김태희 김현정 박지선
배현정 송민지 송유나 안시은 양준하
오혜정 유영선 윤소영 윤수진 이미진
이예슬 이정민 이진주 정다정 정연정
한 나하미림 강민정 서지혜 이지수

독어독문학전공

강민정 김태은 신한별 윤혜정 이슬기
이유주 이정민 조유진 최윤경 하현진
허정희

사학전공

권주련 김다운 김민지 김세라 김윤지
노고은 손현선 윤영은 윤희아 이성현
이지민 이지영 이현주 최선정 최하영
한경민 구현주 권미리

철학전공

강성희 강호연 권다예 권윤우 김가영
김문정 김영경 김예슬 김유민 김은영
김현빈 남초희 박서영 박윤진 박주영
박지현 박혜림 배소혜 백진호 성가혜
성마리 유지희 윤지원 이영민 이은표
임희선 정해선 정해진 지영수 천미송
하연지 한희진 허다운 김새롬 김현진
손현선

기독교학전공

강보현 김민주 김성은 김진희 이선경
임소형 장은영 정소영 정수현 한지은
황도연 강민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전공

강성희 강아영 강예림 강예원 강현주
강화현 공현정 권수정 김가현 김나연
김달은 김미림 김민주 김민지 김보람
김상연 김선미 김소희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연주 김정미 김지선 김지은
김진희 김초예 김현리 김현정 박새미
박지영 백경은 서예리 손나래 손소정

손 형 송수진 송숙영 심영진 안예슬
양나름 양은영 양지윤 염상화 오정현
윤새롬 윤지수 윤초희 윤흥선 이명진
이샛별 이소영 이예원 이정은 이주영
이주영 이해영 임지연 장연실 장윤진
전수현 정다미 정유선 조수빈 주하나
차연화 허민경 최이민 하유림 한경선
한미경 하은비 흥연화 황다예
CUI LIYUAN GAOBU YUKA
Khurtsgerel Bayarmaa Kristina
Sobolciakova MATHEINTI YIZAW
Tachie Maureen WANG ZHAO
WEI 강승연 강수지 강은혜 김성은 김
시아 김태희 김현정 박지선 서정선 서
주희 안지은 유지희 이슬기 이주영 이
지연 이진주 정혜진 조영선 조정윤 조
혜진 최다솔 한지이

행정학전공

강은빈 김가현 김미리 김선영 김선희
김수경 김신정 김영미 김은지 김희정
박다솜 박성민 박세은 박은지 서민지
서주희 서현주 송희경 양문경 양은진
위한솔 이슬기 임지영 장민지 장초아
정다은 정지연 조연주 조윤경 조하영
조현정 조혜주 최용화 한소정 한정윤
허지원 혼혜연 황미라 MADELU
김현나 김화윤 백인경 안라영 윤이나
전하경 정채훈 진선영 최세정 WANG
ZHAOWEI

경제학전공

강승민 강현주 고연주 고혜승 구현주
국현아 권영현 권현미 김가람 김나래
김민아 김설리 김소라 김송아 김송이
김수연 김시아 김예린 김유리 김은비
김은선 김재은 김지형 김진아 김희수
김희정 김희조 나정은 나현지 남우희
남은현 문수진 민지현 박나영 박미선
박민정 박소은 박수연 박수진 박지혜
방민영 방예나 백인경 성예지 송선애
송한나 신가인 신재영 안선미 안소현
안지은 양나영 양소연 여윤빈 윤선영
윤이나 이미학 이선영 이승연 이여경
이윤정 이윤정 이재림 이주영 이준형
이채영 이해리 이해진 이화경 이효민

임유진 임은지 임은혜 임현영 장명진
장지원 전규연 전윤지 정가희 정서영
정서은 정유진 조선주 조은경 조주효
진선영 최다혜 최민지 최선애 최연경
최지원 한나림 한미희 한정민 한지혜
홍담의 흥인경 황서영 황혜은 강미영
강수연 강예원 강예은 강이슬 강정희
강현주 강혜림 공현정 꽈지연 권재영
권진영 김나연 김나영 김도연 김미리
김미림 김민선 김민진 김보람 김상연
김선영 김성원 김성진 김소정 김소희
김송미 김수진 김연주 김예슬 김예슬
김장희 김정민 김지연 김지은 김진희
김하늬 김하윤 김현아 김현정 김현정
김호진 김희정 김희조 노세진 류혜라
모예린 박문영 박 샘 박성령 박세은
박윤진 박은영 배민정 변정림 변지은
서비스 선민경 손나래 손지선 손호진
송지미 송희경 심세리 안민지 안시은
안예슬 양문경 양은영 양은진 유고운
유수연 유지윤 윤송이 윤정유 이가영
이경민 이규정 이다혜 이상미 이샛별
이수연 이승연 이연주 이예슬 이원화
이유진 이지영 이지영 이지인 이한별
이혜령 임지영 장소연 장인주 장혜민
전민수 정기주 정다영 정다운 정지연
정지원 조수진 조수현 조은정 진경아
채희연 최나래 최민경 최서윤 최솔아
최예지 최정현 최종은 하선미 하연지
한성은 한소정 허수정 흥지혜 흥현진
황미라 황아영 Enkhbold Buuruljin

문화정보학전공

곽윤지 권오미 김수정 김지영 김현아
송한나 이경진 이미소 정주연 정진주
최수연 최재은

김수연 백수윤 조은별 조현정 채현정

최경진 한경민 한미경 YANG FEIFEI

사회학전공

금서랑 김정아 마지막 박서연 서정윤
송세은 윤송이 윤은정 윤지연 전성연
정나위 진청아 채희연 최성령 최종은
IIYAMA SEIKA YANG LIMING
권다예 문이슬 문희순 신찬양 심서경

양나름 이봄이랑 이영민 이예슬
이혜영

YULINIZHENG ZHIYU

심리학전공

경정하고연희 꽈미선 권채린 권현정
김나실 김나현 김두리 김드레 김선화
김선화 김소연 김아라 김연수 김예은
김지선 김 현 김현정 김현지 민지희
박슬기 박아영 박우리 박은지 박인화
서주희 서해인 석유승 신현경 심서경
안서연 양희조 오가원 오리라 이다슬
이설악 이수경 이지현 이초여름
이혜린 이해원 장지영 장지윤 전나영
전수정 정창희 조은지 진지선 한솔이
홍가영 흥예진

Chen QingQing Yang FEIFEI

구혜인 김나래 김동희 김문정 김마래
김민정 김소정 김영지 김예슬 김유민
김유정 김은비 김이슬 김정민 김지선
김지영 김지혜 김한울 김혜진 김희영
노고은 박다솜 박소은 박재은 박주리
박지혜 박지훈 박희윤 배선영 박윤경
백진호 서심지 서정윤 손은별 송한나
신지현 안자은 안혜연 양소영 오소연
오승이 윤수진 윤지원 윤혜미 이새배
이승연 이영민 이우형 이우민 이정음
이정주 이향연 이해진 임선희 장초아
정서영 정서은 정소원 정소희 조아라
조은희 진청아 최수연 최이민 하주희
허은진 허지원 흥수민 홍도연

소비자학전공

강정희 김나연 김다예 김민정 문은정
박지현 이우형 이정음 이정주 이태희
이한별 이현경 정지은 황수현
SONG JIAZHANG JINGQI
김은혜 박혜진 방 울 신하림 여가희
윤선영 이다슬 이샛별 이현주 전하영
전한별 지영수 최주연 홍가영 홍유설
홍주리

언론정보학전공

강효민 꽈주현 김보경 김혜린 름 림 문
영은 박민정 박희윤 신은혜 신찬양 오
화린 이다정 이민희 이세경 이예슬 이
지영 이현서 이해성 조은별 주미란 최

서윤 최은지 한동주 흥다영

Takebe Eika 강아영 김다정 라일락
민인경 오희정 윤은정 임소형 장보경
장정윤 전수현 전은진 조소영 차정윤
최하영

광고 홍보학전공

강은지 권수영 김미란 김지은 김효진
박혜진 오혜미 오희정 이가은 이고은
이여경 이예진 이유민 이주연 이지현
이진아 임선영 정소원 정원희 조수현
홍수민 황유정 JIN XIAO
김보경 김선우 김유경 김혜진 박민정
박소라 엄성희 오정은 우 연 이원경
최은지 흥다영

방송 영상학전공

김가영 김다정 김유정 김지민 김진영
김혜진 김희영 민인경 박선빈 박 진
여가희우 연유미진 이봄이랑 이영서
이우정 이원경 이자수 이한솔 조소영
Han Chao Yue YANG FANSHU
YU 니니
강소희 강호민 김민아 김한림 이가은
이예진 흥다영 황유정

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

강이슬 권지혜 김모란 김보람 김선형
김윤지 김지연 김하윤 박진희 방자현
신혜은 오다영 이다연 이상미 이설아
이수연 이유진 이지수 정은주 정희영
채희수 최민경 최솔아 최예은 최예지
최지현 흥지혜 황기쁨 황서연 황수진

통계학전공

강수연 권재영 김도연 김성진 김송미
김수진 김여은 김예슬 김주현 박은영
박은영 박은지 박지윤 배소영 서비슬

심규창 심수아 안정희 안주연 양진영
이승아이연주 이지영 장소연 전가영
정다운 조수인 조수진 조은비 조현영
진다예 흥현진 황나영 김민지 김예린
정지윤

물리학전공

고승호 꽈민지 김민경 김승연 김은아
김현정 박슬비 방이현 심지현 유지연

이나영 전은혜 정미진 진혜진 흥은하
국지현 김은총

화학 나노과학전공

고예은 국지현 김민경 김민정 김수민
김지현 김진아 김진후 김하늘 김현영
남상아 남정수 마신미 목은경 문정미
문치윤 박민영 박보리 박솔지 변지은
서자인 서현옥 손나윤 신하림 안민지
오세진 유아름 유희진 윤소연 이다애
이샛별 이수민 이은진 이지혜 장은선
전한별 정지윤 정진아 정희정 조우연
최상아 최수진 한효지 흥성경 황세연
황희원 이규진 정보경

화학전공

강민주 이혜은 한지연

생명과학전공

강병은 강현정 고현진 곽영지 김보민
김성연 김세희 김수경 김수연 김시내
김연경 김예지 김재원 김재희 김정연
김정은 김지하 김지현 김채아 김태은
김현경 김혜미 김효미 노지윤 류연화
문신혜문지영 박민경 박병화 박선영
박소현 박승희 박용정 박지영 박진아
배서현 배준영 성소윤 손하림 안혜진
양지원 염지연 여지원 염지은 유병아
유재리 유혜선 윤주현 윤채영 윤혜진
이가영 이경연 이규진 이새롬 이신욱
이원경 이유경 이유진 이윤진 이재인
이정민 이지윤 이진영 이현진 임서영
임세연 장미미 장신영 장예은 장유정
정기주 정다미 정보경 정지선 정혜인
조민정 조아람 조예지 조희선 최아영
최예인 최지원 최호영 한지원 허수경
황다해오가원 장영빈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김미래 김미진 김미진 김여진 김연우
김연진 김영인 김윤형 문혜원 박경현
박선우 박소연 박소영 박여울 박주희
백지윤 소수진 송지영 오영주 윤소영
윤슬비 윤지윤 이다솜 이도영 이윤재
이정미 이정현 이지희 임나리 장세현
장유리 장혜린 정아름 정정민 조민애

지향은 차지원 혼희정

전자공학전공

김보미 김보미 김승혜 김자은 김재인
김지은 김희선 남윤지 남현수 문효이
박상아 박원정 박유진 박지민 백수경
변하영 서지희 서효정 신수아 염희란
유 리 유소희 유현지 윤예림 이가현
이경민 이기민 이아랑 이아름 이영화
이인재 이정진 이지수 이하늘 이현정
이혜진 임세라 장정윤 조아란 조윤경
진윤영 최라온 최지수 한소리 한아름
한은지 흥예원 흥주희 흥채린 조현영

건축학전공

강영민 김고은 김다솜 김선진 서성은
신용선 안정원 안지현 이근우 이민희
이선경 이은정 이주영 이지원 정문영
정은송 최정은 현지연

건축공학전공

김민정 김유리 김희진 방현지 안수미
안아영 엄나연 이나미 장수원 진혜선
채수빈 황선민

환경공학전공

권정희 김다나 김미경 김민경 김보연
김정미 김지은 김희영 류수정 민선아
성지혜 안지혜 우신영 윤정임 이 슬
이윤진 이한솔 장소연 정소영 주여진
진선헤 최나래 추지선 황지원

식품공학전공

강다인 권윤주 김나현 김민선 김민지
김부용 김예진 김 진 김채영 김효영
노수현 배민경 배수영 설진경 성소연
성해진 신현경 양지연 우영희 이나겸
이선주 이영빈 이유나 이유진 정혜승
한승희

음악대학

건반악기전공

강민지고은빈 곽현아 김세은 김연수
김정민 김진이 나다솜 동해솔 민지혜
박리나 박지수 백수윤 백정은 변세희
안예슬 양경준 양정윤 윤예은 이다은
장지영 전소현 전옥길 조성은 지한비
한은지 흥서영 흥주리 황인선

건반악기과	한국화전공	의류학과
최민	강수연	강민지 강수지 길도영 김나연 김미라 김예진 김현아 박나연 박수빈 박휘향
관현악전공	서양화전공	박희진 백윤경 서은실 서지혜 유영지 윤 경 이슬비 이영해 이윤지 이은지 이혜미 정유나 정재연 정재윤 정현정 조현아 차민경 최주연 한도현 황유나 김지수
고찬미 박은수 권혜린 김나연 김도윤 김민지 김애희 김예빈 김윤희 김효진 남지원 노푸름 박소영 박정민 안세원 안윤재 양정민 오소연 유성연 유예지 유혜인 이기쁨 이다경 이수연 이현은 이혜승 전규민 정은지 조유진 최수지 최지영 최혜미 표지우 황지윤	김민주 김세미 김수진 김수현 김윤이 김정민 김지수 김현민 김현진 김희연 김희재 박소현 박채린 박하연 양소현 위한별 이기운 이하나 이현승 임난영 조연주 최단비 최서희 최지원 허유경 홍주희	
성악전공	회화 판화전공	사법대학
김민지 김예슬 김준수 김현지 김혜정 김희윤 박다정 송은별 이규임 이새날 이지은 이지은 이해림 임현진 정효원 조성주 조은희 최진주 한수지 한채린	조형은	교육학과
교회음악전공	조소전공	강다연 고연주 권용선 권유정 김민정 김은경 김청미 김한아 김한울 나정혜 류지영 박보경 백현영 서유경 송은솔 신재연 신지예 신현진 전소현 하지선 황은정
유진희	김다나 김예운 문지연 민세라 박승은 박희정 신미자 정현아 차한나 엄민영	유아교육과
작곡전공	섬유예술전공	강민경 강민지 강은영 국혜온 권수경 김규리 김규아 김다예 김미선 김민지 김민지 김수진 김예슬 김우주 박신지 배주형 백민주 성민주 소예온 송정아 신경화 옥나겸 원주희 윤빛나라 윤수현 이경주 이예슬 임서연 임정희 정인경 정현정 조예린 하수연 한산섭 한지원 허은진 허지영 강로원 한지은
김다정 김민혜 김시전 김여진 김인혜 문예제 민혜인 박소연 백성희 서희경 신정민 양지혜 윤은혜 이수진 이언정 이주혜 이현정 장경혜 전도현 흥유진	도자예술전공	초등교육과
한국음악전공	경규빈 고해정 김가현 김민경 김민아 박은신 박효진 송수진 이슬이 임정연 장민아 전은영 정지연 하세연 흥선민 홍을지	강다영 강민정 권다혜 김동희 김아경 김엄지 김유경 김한솔 김현주 김효진 송윤지 신인용 신해윤 오혜인 유수진 유현지 이다슬 이수연 이용은 이유나 이유송 이은별 이은지 이지은 이지현 장예림 정민수 정지수 조서연 천현진 최예슬 최지현 고연주 김아연 나정혜 신유선
한국음악과	공간디자인전공	교육공학과
김현정	강민정 박미진 오유진 이지연 장은별 조아라	김민지 김시원 김아연 김용경 박가연 박효선 신현진 이민영 이수민 이윤경 이혜윤 장애란 정유진 정채훈 조현경 한상은 황세현
무용과	시각디자인전공	
곽경가 권윤희 김예지 김유진 김현진 문솔지 백아람 서민영 송아름 송은혜 송혜승 신연정 윤진아 이서연 이예랑 이은교 이이령 이정수 이채민 정수민 조은희 자성연 최자수 하지연 한지영	김다혜 김민정 김예란 김지민 박기훈 박지훈 배성해 배지현 송해니 이반디 이향숙 정수현 조영원 고해정 성희정 이하나	
조형예술대학	시각정보디자인전공	
동양화전공	김정현 현의진	
박미솔 박윤지 박윤하 방빛나 손록인 심예원 양현모 윤도현 이유진 최종현	산업디자인전공	
	권민선 김기은 김소정 김수민 김여진 백성현 신재현 이승연 정수진	
	패션디자인전공	
	김수민 박예지 사공현 신민경 신혜린 왕지영 우인정 윤주미 장윤서 전무영 조형은 Li HUYING 신미자	
	영상디자인전공	
	강소진 김수연 김인주 김재은 박가민 신경원 염준희 오경아 우수진 이수현 이재경 최선명 최원선 김해지 양소현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전공)	
	강로원 이예슬	

(초등특수교육전공)

강미정 공미지문화영 박슬기 박현진

(중등특수교육전공)

김예지 상새아 이민주 이새미 이아린
정여진 조진미 지현영 김한아 이시은

특수교육과

김지윤 박수연 손민경

영어교육과

강수연 고원영 김가영 김나린 김명재
김민진 김선희 김수정 김수희 남수경
노윤희 박소연 박소혜 박윤정 박은지
박효린 배영신 배향아 백수연 서유경

서지연 심윤영 안선영 안혜연 양승연
옥별아 윤수진 이나영 이호석 이희아
임미나 임지선 정하영 최연희 한경체
히다솜 LOH YUAN QI 강다연 권예진

김민지 김민지 김혜진 신혜인 양혜인
원주희 장애란 전소현 하지선 한진아

사회생활학과

(역사교육전공)

강민경 김용숙 김지혜 김진희 나해린
박혜정 손유미 신혜림 안지현 양혜인
오유선 오혜인 우하경 유수지 이희락
임현지 정다영 정혜선 조하경 진경아
한지현 허윤정 황자람 김혜진 배영신
서지희

(지리교육전공)

권희윤 김가연 김기연 김보미 김초록
김현송 김혜진 박서영 박효진 서지희
신유선 이지수 임하늘 전현희 정진아
한진아 흥연실 김예지

(일반사회교육전공)

강예은 권순주 권예진 김영지 김정민
김하늬 김현지 노세진 박지윤 백현미
신혜인 안라영 이규정 이승민 정혜욱
한유진

국어교육과

강승연 강수지 김미래 김새롬 김주희
김혜진 노윤지 문희순 박민지 박세희
박은주 박지나 안혜은 양윤희 이녹경
이시은 임수경 차하나 최승은 최유정
황수윤 권유정 김현지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전공)

강주연 고은임 나소민 박수연 박혜미
성정민 양민아 이다솔 정민지 정소연
정지원 정희수 조상아 조하나 최혜민
함초롱 허진경

(화학교육전공)

강보미 김가화 김미화 김보희 김세현
김수정 남궁민 신경애 안수진 이루리
이슬희 이윤진 이은지 정 솔 정수지
정은진

(생물교육전공)

강선미 김나래 김영현 남다솜 라지은
박경아 이유진 이재은 이지아이차은
이혜진 정수진 정재은 정혜영 최유정
최주화

(자구과학교육전공)

권희경 김다나 김보민 김혜린 나윤진
노명인 민영주 양서현 양혜원 이예지
이지은 임소현 장지윤 정지영 정찬미
최혜민 풍단비

수학교육과

권정민 김민희 김소민 김예령 김유진
김윤정 나경민 박다연 박성희 박윤주
박희수 사공혜미서지원오지영
유여경 이새롬 이지수 이현영 이희리
임지은 하예진 하윤실 허현경 흥소정
홍은지 이새미 황은정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강다슬 강미영 강민희 강혜림 강혜지
강희정 고예희 구영인 권미리 권선우
김가연 김나영 김민경 김민선 김소연
김소정 김소정 김시연 김영윤 김은혜
김이슬 김지수 김지영 김지영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현진 김혜의
김혜진 김희원 남지영 노세진류혜라
마지나 모예린 박라경 박미소 박 연
박윤주 박재현 박자은 박지혜 박호준
변정림 서현경 서현진 선민경 송아영
송지미 심해린 양소영 엄성희 염지선
원아라 위자현 유고운 유미리 유수연
유지민 윤다예 윤선미 윤정유 윤주희

이가영 이다혜 이동민 이새배 이승은
이아름 이영경 이원화 이유미 이유정
이윤아 이은혜 이지영 이자영 이현주
이혜숙 이해임 이해준 임선영 임은아
장보영 장성혜 장윤정 장혜민 전누리
전민수 전정민 정지민 정지원 정지혜
조일지 조캐를 최다은 최유라 최유진
최은희 최정현 최지원 최찬미 최혜지
한채영 한혜민 허정윤 흥유설 흥주영
황아영 EI THIRI HAN Enkhbold
Buuruljin JIN CHUNHUA
Kukshebayeva Ainura LI YAN
Thae Thae Wynee Chit Valeriya
Tavolova ZHENG ZHIYU
강성희 강현주 공미지 권수영 김나연
김다예 김민선 김민성 김민지 김보미
김서현 김선화 김설리 김세진 김송이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시원 김아영
김여은 김여정 김유진 김윤희 김은아
김웅경 김주현 김주희 김지선 김지영
김지형 김현아 남초희 노단빈 노소영
독고윤 동해솔 류민선 마지혜 맹서현
박나영 박보경 박세희 박소은 박수빈
박유진 박은지 박재원 박정민 박자은
박현지 박혜림 박혜림 박소영 성매아
리소다은 송봉경 송자인 신정아
신현진 심지연 안정아 안정희 양소연
양희조 오혜미 옥나겸 우주현 유수현
윤지연 이고은 이미정 이민아 이성현
이슬기 이슬비 이정현 이조은 이지원
이지윤 이지현 이진아 이태희 이한솔
이현아 이현주 임선영 임유빈 장지영
장지영 전가영 전규연 전민석 정서윤
정수현 정현주 조진현 조현경 조희진
진다예 최리나 추가희 하명진 한도현
한미희 한보람 한지혜 흥윤하 흥인경
횡다예 횡수현 JIN XIAO

국제사무학과

김신화 김아영 김지영 김종명 독고윤
송봉경 신지원 이여진 이연재 이지원
전민석 조혜진 표예나 MI Xiao Lu
강다슬 김고은 김민경 김수민 김윤지
김지현 문은정 박상미 박서영 심민순
유신형 유영지 윤지수 윤혜정 이경연

이녹경 이정민 조일지 하미림
국제사무학전공
권미정 김매이 서수정 이가영 고소연
허지영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전공

강미나 강수영 강정아 곽민경 구예나
권수정 권효정 김경은 김경혜 김다연
김민경 김민지 김수정 김슬기 김예지
김유정 김지수 김지윤 김필송 김현주
김혜정 노희경 동민영 문소현 민주연
박세은 박소민 박수경 박수정 박은지
방예림 배재원 서민해 서재은 손윤희
송예슬 양지영 우수진 윤수연 윤지현
이고은 이보연 이소정 이수진 이수현
이승만 이연주 이예진 이유나 이윤새
이지혜 임의름 임해진 전경진 정다영
정유리 정유진 정은혜 정해인 정효경
조아람 조은미 지수현 차미나 차세희
최영혜 최예슬 최정원 최정인 최지현
최혜원 한솔 황명하 황유리
Jubilee Hla Turakulova Sevarahon
Olimovna

체육과학전공

강혜인 김보람 문솔 민서 흥박정현
윤선경 이영지 장혜원 전소연 전여민
함유라

체육과학과

권예솔 김고은 김다현 김소영 김영지
김은지 김희선 박은주 박재은 송안나
심한나 안이슬 유경아 유다은 이 삭
이연희 이지영 이향연 이현아 이효석
장민아 전은진 정수진 차은채 채현정
식품영양학과

고정은 김미란 김유정 김 인 김주은
김현지 노단빈 노윤경 노윤정 박다영
박민정 박세희 박소현 박효진 송이진
신혜진 심민순 안지애 양수정 이가영
이경민 이보영 이소영 이아림 이유리
이자연 이재연 이조은 이지수 이해민
임선영 임수정 전한별 정승아 정유나
정혜인 조지연 조하영 지영민 최보윤
하태은 Wen, Xue Mei 이슬

보건관리학과

강한솔 고금지 권예솔 김가은 김문희
김소진 김은진 김현아 김혜경 노현정
맹혜진 문아람 손민경 신지현 안수민
유슬기 이나연 이명하이 슬 이종희
임소명 임유빈 임지현 장문영 정지윤
최부경 허선 Tiwari Shristi

약학대학

약학과

이유진

스크랜튼대학

자기설계(스크랜튼-통합적문화연구)전공

강예림 김리현 김은영 김현진 전하경

자기설계(스크랜튼-디지털인문학)전공

김민지 김현용 김희은 배현정 조진경
자기설계(스크랜튼-사회과학이니셔티브)전공

김가람 김보람 김지윤 김현정 박라경
박은지 손지현 양혜지 오화린 유수연
윤홍선 이승아 이유정 이유지 이채영
임희선 장예은 정원희 친미송 최윤영
홍예빈

자기설계(스크랜튼-과학과생명)전공

김예은 김현정 신혜은 이자수

자기설계(스크랜튼-인체와건강)전공

김세희 김예지 박민영 배준영 이유경
이자연 이재인 이지혜 한효지 현재은
자기설계(스크랜튼-사회과정의)전공
김민주 김선화 김현리 김현주 서 려
여윤빈 원아라 유지민 이명진 이세경
이소영 이소흔 이아름 이영경 장소원
정가희 정소영 정유선 차연화 최다은

국제학전공

강은혜 강주연 고민지 김서현 김수민
김수현 김예은 김윤진 김지현 김한샘
김현지 김혜운 김후연 남유선 류민선
문정은 박규리 박소영 박소현 박정민
박지은 박채린 배선영 변혜진 신정아
심지연 안민지 안주은 양혜지 오정은
우은정 유수연 유신형 유지윤 이미정

이민아 이민재 이유빈 이정민 이지인
이채린 이해니 임푸름 장영빈 장혜민
정범준 조은정 조정윤 조진현 조혜진
주예림 차영림 최윤영 최윤희 하주희
Muhamiriza Mapendo Noella
박나원

예술대학

건반악기전공

김은총

관현악전공

방울

성악전공

박선영 이예진 이윤진 이지혜

한국음악전공

고소연 김도빈 정주연

동양화전공

권혜지 김민경 김보경 김주희 박주리
박해진 성희정 길선하

서양화전공

김민성 김민정 윤지현 이시은 이희정
진미리 최윤정 한은혜

조소전공

김해지 이가영 진민지

섬유예술전공

서민주 승다해 안유진 윤종현 장혜미

도자예술전공

고도영 길선하 김현경 이수자 정보람

공간디자인전공

김민영 오승이 이재미 전영재 지연지
시각디자인전공

권희윤 전수민 김주희 박해진 최윤정
산업디자인전공

이은정

패션디자인전공

김유리 안라정 이정아 장진경

영상디자인전공

김나연 김민경 김예은 김이빈 이자은
이지혜 임송혜

의류학과

김승현 김아정 김주희 박미나 신혜미
우은지 정은영 정현주 최경진 하선미
한은혜 한은혜 홍주영

무용과	정현아 정혜인 조연주 조현아 주예림 차민경 최종현 최혜지 한동주 한은혜 홍주희 황유나	성정민 신경애 안수진 양민아 양서현 양혜원 이다솔 이루리 이슬희 이예지 이유진 이윤진 이은지 이재은 이자아 이자은 이차은 이해진 임소현 장지윤 정민지 정소연 정 솔 정수지 정수진 정은진 정재은 정지영 정지원 정찬미 정혜영 정희수 조상아 조하나 최유정 최주화 최혜민 최혜민 함초롬 허진경 홍단비
법과대학		
법학과		
고혜린 구민정 구희수 권경민 권시내 권신혜 김경원 김경현 김나래 김민선 김보라 김새별 김석영 김송안 김수정 김수현 김예영 김재연 김정민 김지현 김진주 김재하 김하늬 김현나 김현아 김화영 남유원 노소영 노지은 류정민 민지영 박문경 박미영 박성령 박세영 박수진 박시형 박은영 박은영 박주현 방유화 서미영 서민영 서 울 서지혜 서희경 성미솔 손지은 송영주 신나연 신인선 신혜원 안지희 양두리 양은영 우지연 유경재 유나래 유연영 유은비 유현진 윤선아 윤세미 윤수진 윤정은 이다영 이미영 이민주 이선민 이선아 이수경 이수민 이수은 이정언 이정은 이채린 이형화 임샛별 임영신 임준이 장유진 장진경 전효진 정가원 정가은 정다희 정소연 정예빈 정은혜 정한결 조다미 조빈나 조순아 조아라 조 원 조유화 차유나 최문주 최민영 최선희 최설미 최세정 최윤정 하우정 허은정		
생활환경대학		
의류직물학전공		
손혜원		
연계전공		
동아시아학전공		
강민주 강화현 박윤지 김정연 백혜진 유하정 윤세미 이미학		
유럽학전공		
이정민		
미술사학전공		
강민지 김민주 김민지 김영미 김윤이 김지원 김현민 김현빈 김현진 민세라 박소현 박승은 박우리 방빛나 서은실 손유미 송유나 양지윤 양현모 여지원 우은지 유미리 유영선 윤지현 윤희아 이수재 이승연 이영서 이우정 이운정 이은지 이정수 이주영 이지민 정진주		
과학기술경영전공		
권순주 권예진 김기연 김용숙 김정민 김지혜 김초록 김하늬 김현송 김현지 나해린 박지윤 신혜림 양혜인 오유선 이지수 정진아 한지현 황자람		
공통사회전공		
강보미 강선미 강주연 고은임 권희경 김가화 김나래 김다나 김미화 김보민 김보희 김세현 김수정 김영현 김혜린 나소민 나윤진 남궁민 남다솜 노명인 라자은 민영주 박경아 박수연 박혜미		
석사학위 수여자 명단		
대학원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강효정 김지예 김혜지 박민희 박혜인 최다정 황유경 Adhyana Putu Pramania ZHI WENJING		
중어중문학과		
엄지		
영어영문학과		
엄지원 유명혜 이한나 조현경 조현지 불어불문학과		
강혜미 양지영 기독교학과		
송한솔 황유리 철학과		
신상후 신지현 임연경 흥예리 사학과		
박영은		

미술사학과
고아라 김민정 김수진 김아영 박정연 송윤지 신선정 이진아 최화정
소비자학과
김순복 유혜진 이지혜 이현숙 한재민 HAN XUEFEI
여성학과
김연정 배성신 이주혜
교육학과
김미숙 김정현 박세영 박현정 유종남 이기원 이소연 이수진 이은혜 이호은 정수인 최유경 최은미 한아름 한하나
유아교육학과
강경미 김지나 김지윤 김지희 박향기 박혜림 성인순 양선희 유한나 윤해수 이인선 이하원 최로사 흥예진
초등교육학과
이아람 주현정
교육공학과
김동심 김영주 김은희 김현정 오성은 정윤하 한상윤
특수교육학과
남보람 신수진 흥경
영어교육학과
강민경 서정숙 조지영
사회과교육학과
김수정 김유진 신지연 전은지 전하나 파수경
국제사무학과
고윤정 권세정 김수정 김지애 윤은원 이채연 장지연 정은수 황보나
수학교육학과
윤혜미 정혜주
동아시아학연구
김민정
정치학석사
정치외교학과
김혜은 김희수 여민정 유미형 이가영 이하영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박소정 우소현 장희란 차유경 최윤희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김시영 김혜련 서보슬 송보라 이동희 정내라 Dolgorsuren Agiimaa
문현정보학석사
문현정보학과
김태희
심리학석사
심리학과
강동주 김선경 김소정 김수진 김지혜 민지원 손정민 안유선 양은혜 오수경 우리나 유지혜 이수지 이지연 이지혜 정애린 정혜린 조현정 흥승희
언론학석사
언론홍보영상학과
김소연 김유진 배상현 서수민 오해정 이래현 이지은 장서진 정지영 최다형 허서현 Asavayonchai Pichaya HUANG HAIYAN PAN YUANYUAN
아동학석사
아동학과
김소영 김은혜 김혜원 방은지 배주영 배지아 엄주하 이지은 조윤영 조은꽃 최에스더
북한학석사
북한학
김유연 김지아
교육학석사
국어교육학과
김명은 문선영 박수현 윤호경 CUI WENJUAN LIN HUWEN
영재교육
권은지 김근옥 김미영 김지혜 김태미 백민주 유아람 장지은

언어병리학석사
언어병리학과
이민희 이유경 전경해 정유경 한세은 홍성미 흥영주 흥현주
법학석사
법학과
김나래 박가림 서희정 송민정 오정진 유은영 이미나 채지영 최현정 하민정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강지연 김주희 신혜정 오현정 우민영 이미현 임자은 황주연 황혜진 SHAKHANOVA NURASSYL
음악치료학석사
음악치료학과
권애지 백지은 이남원
이학석사
수학과
고은정 박지혜 임수민 정선아
통계학과
강해인 김정은 김지연 류혜민 박혜리 서유형 송혜진 신현정 오수지 윤정화 이경진 이정화 이해정 임연주 정현지 최선옥 최지희
물리학과
안민정
화학 · 나노학과
계은정 권윤혜 권은지 김가인 김미선 김수정 김유림 김재미 김진화 류현주 박가영 박수혜 박신애 방수희 석자수 소 희 이민지 이유민 이해연 정선정 조경연 조소민 주재희 최정윤 한유선 NGUYEN THU HANG Zhang Wei
생명과학과
김상옥 김주희 박지수 이소희 지민주 최명선
식품영양학과
김옥연 김유선 김혜수 나예슬 문선진 박민영 박수연 서상진 이해민 이효진 장원 정혜윤

에코과학부	MYAGMAR OTGONJARGAL TIAN LIANHUA	디자인학석사
강재연 김미선 김세연 노푸름 안은주 이보라 이자옥 장숙진 최은애		디자인학부
의과학과	김소원 김지아 석지영 안수현 이지영 정지혜 최은혜	김명하 김예솔 김해경 박영현 박진희 박희은 변나리 서정아 신정은 우정민 윤지영 이경표 이승화 이해미 임진희 정미진 정혜인 조윤아 주유빈
김지은		CHUNG SARAH HWON
바이오융합과학과	건축학과	의류학석사
김태언 이지혜	임선정	고유화 김지영 류한나 박진경 손양아 이유정 이정민 조효정
뇌·인지과학과	건축공학과	의류학과
김은정	임아람	조아림
약학석사	환경공학과	무용학석사
생명·약학부	김혜연 윤나리 이하연 정소연	무용학과
강주경 김영윤 남혜연 박소미 유가은 이담경 정유림		김동림
약학과	식품공학과	무용석사
김금지 김다영 김상아 김지혜 김희정 류승연 문양원 박예슬 백경혜 손가람 안지윤 우현정 윤이수 윤혜은 정예진 조한나 주혜인 최고은	강유리 김진영 이영아 이초롱 이화연 전선영 전연진 조수경 조윤희 조하연 황민희	무용학과
과학교육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석사	생명윤리학석사
과학교육학과	디지털미디어학부	생명윤리정책
김은미 박정은 이윤경 임현구 정경화	김보나 김유나 민보아 양수지 유능화 윤주희 이나임	윤이례 임수정
보건학석사	음악학석사	국제대학원
보건관리학과	음악학부	국제학석사
김지은 박여진 박유애 박정민 심민하 이승미 이효주 전주애	김지연 맹성연 박수진 조한나	국제통상
간호학석사	음악석사	국제경영
간호과학과	음악학부	문현경 차민선 채명희 Tyan, Olga Wu, Qianxi
고지현 김난 김미영 김세희 김은영 김정희 김형자 박서진 이보람 이주안 전혜연 정인애 정현선	감경주 계혜민 구연모 김보희 김소연 김정경 김현정 노선우 박빈채 박송이 박수현 박수현 박지영 백승아 서원정 유윤주 유지희 윤정원 이로운 이미숙 이승현 이유나 이유화 이은혜 임민정 임송이 장희원 채화정 최윤진 하수진	개발협력
의학석사	조형예술학석사	김은정 문서영 박주현 유정현 임이랑 RODRIGUEZ CASTELLANOS, Amelia Ines
의학과	조형예술학부	국제관계
곽유진 김수진 김지원 김진실 변아리 유승현 윤태희 장인애 차지혜 차인혜 함초롱	최희진	김효진 윤보라 ALDUJA ILI, FARAH JAFAR BAQER KHUSANJANOVA JAMOLA
공학석사	조형예술석사	
컴퓨터공학과	조형예술학부	
김유빈 김주리 신혜진	고형지 김선지 민은희 박선양 박신영 박종인 손진희 신승주 유서형 이솔 이은나 정수영 정은지 채연수	

한국학석사

한국문화

AREEYATHANAWAL, Chutima CHEEVAPITAKPOL, Arisara Lim, ELENA OTSUKI, Shinobu Saori, Yamanashi ZHOU, Liying

한국어교육

양가온 오나리 한지원 OKAMURO, Ibuki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석사

한영통역

고나연 권기은 김소연 김은형 박은희 신산하 오시연 이경애 이미선 이미현 이은지 정수지 진유화 최선주 한유나

한자은

한불통역

박애리 선우경미 임나무 정지윤 최연경

한중통역

김유미 박소현 오윤희 유현경 유현주 이선미 이지선

한일통역

김선아 김하림 김현정
니카시마 게이코 남고은 남보람
명진형 박윤선 윤새라 윤혜경 이규진
장소정 정지민 최미선

번역학석사

한영번역

강석영 강은실 김난영 김민하 김주형
김진아 박은우 신영경 신예림 신하영
윤세미 윤지혜 이미경 이미경 이선민 이유미
정소라 정승아 조아라 최아영 함유선
황미영

한불번역

김수빈 김정은 박지선 변지연 브랑 소피
윤여림
한중번역
강은혜 정선화 정은정 조재연 한서윤
한일번역
우경진 원형원 이채정 흥새롬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

고유진 김경희 김민혜 김서현 김설희
김세희 김소영 김양희 김유희 문은하
문인영 박소리 박아름 박정림 박주나
박초롱 박호진 서송주 송현정 신수정
엄정화 오주연 오희주 우유라 이상아
이서현 이원지 이향연 임예나 임혜림
전선율 전효정 정다은 정운영 정평화
조정은 진성미 최혜림 허원빈 황사라
Tin Natalya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

경영학

고숙영 김가희 김세리 김수진 박미영
박주혜 박주희 서상숙 설미희 유연지
윤영주 이경희 이미연 이민하 이아영
이윤정 이정연 이주희 전민주 조희정
최서진 최정윤

재무

박윤제 이수지

회계

심이정

마케팅

박혜미 양서연 한선희 한지수

경영정보시스템

김소영 손미정 신예송 최정현
인사조직전략

김민정 김설희 민도례미

금융MBA

오은주 이나영 ZHUXUE YUN

회계전문MBA

김명진 김수경 유사영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

의학과

강현지 강희원 고영선 고윤정 박지영
권은진 권혜영 금지영 김규연 김남은
김민정 김서영 김수정 김승아 김주연
김주희 김지윤 김지현 김지현 김태선
김현정 김현정 남은희 박민지 박선민

박선화 박소연 박소현 손민지 손윤정
송승민 송주혜 송지윤 신수정 신은혜
심선아 안민지 안여림 오단아 오정민
우보경 유태리 유혜진 윤윤선 윤지윤
이미진 이민영 이선용 이세원 이수연
이영명 이영은 이지연 이지은 이지은
이현애 이현정 전지영 정원근 정유경
정의선 정자은 정혜원 정혜인 조선희
조은혜 조주연 채지선 최윤서 하수희
한인정 한지현 함아룡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법학과

강다해 강은지 강이현 박소영 김다연
김동은 김민경 김민아 김분미 김수경
김예나 김유경 김유나 김유빈 김윤이
김윤정 김은혜 김정윤 김주희
김한가희 김한내 김현진 류두빈
박나현 박다미 박여정 박영룡 박유미
박정민 박주민 박진희 박하늘 박혜원
박혜준 배교연 백경화 변지민 서예지
선수지 설영지 손혜진 송미정 심수현
양보윤 양혜인 원선아 유새롬 유수경
유희승 은송이 이승희 이수지 이슬발
이시윤 이여경 이은주 이은형 이은혜
이지선 이지숙 임규옥 임꽃보라
임혜진 장윤정 장지영 전보영 정소영
정원정 조가희 조신영 조예서 조윤정
조정근 주형미 차현지 채선영 채송아
천주원 최보영 최예진 최유나 최유정
최은경 최정지 최지영 최지훈 최현정
추미숙 한경진 한경희 한아람 함인경
허지연 흥경선 흥연경

교육학석사

국어교육

김민정 맹형진 박초아 유혜련 이민주
이보람 이윤희 이은주 이효주 황지은

수학교육

곽소연 염혜진 이근영 이승아 정두리

역사교육

권은영 김나연 김민선 김은실 손혜린

지리교육	교육행정	사회복지대학원
노태진 이주은	조재은	사회복지석사
일반사회교육	교육과정	사회복지
김희선 이라영 이해정	변미나 신지윤 이효인 임수진 최진숙	조정아
물리교육	홍수진	
이정연	상담심리	
화학교육	강주연 구민정 박선민 석 류신지은	
신지원 장숙경 조희	신호영 여은주 이수정 조소이 최선희	
생물교육	최희정	
강예람 백윤진 이숙희 진현정	교육공학	
지구과학교육	조보람	
김진경 성수경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강원구 강효승 김보경 송운옥 양주희	
김인옥 김해나 나현이 문다영 박선영	이윤해 이준언 정윤정 정현숙	
서현선 신지은 심다영 안에스더	음악치료교육	
유가영 윤영지 이소진 이승민 이청민	강혜숙 김미령 류경빈 박혜지 박효정	
최윤지 하슬기 홍승아 황지선	서유리 안성희 오주현 윤아름 이은애	
미술교육		
김보현 김선영 김지원 김효정 이주은	디자인대학원	
이현경 조민진 조은진 조현진 황미란	디자인학석사	
체육교육	의상디자인	
김경희 김 완 김진하 김혜정 김희진	김성유 김지선 김혜진 백진주 이은영	
박보라 서승민 서연정 성민경 성윤신	주예원 한은혜 험솔아	
안선숙 안주연 양지현 유지은 윤민아	섬유디자인	
임경선흥유미	김예훈 장현정 최유리 홍세진	
가정과교육	도자디자인	
손경주 양수정	김희원 최유진	
도덕 · 윤리교육	광고 · 브랜드디자인	
박선희 이나영	공민선 김미경 김지원 문선희 위가연	
영어교육	이소현 이송아 주정민 황수정	
박소영 박수진 서영지 이경미 이다예	실내디자인	
중국어교육	김경미 이미지정기록	
김경민 김명선 김수진 김조은 이정은	User Experience 디자인	
임보연	문정순 박병아 박예경 양희림 임소희	
환경교육	임은실 조미숙 최유미 황효현	
김송이	디자인매니지먼트	
컴퓨터교육	고신영 김선경 이나진 이승민 이영지	
김경미 이수경	임아진 정승연 정재은 조은송이 조지	
유아교육	혜조희승	
김은정 김지은 박지선 손은실 심정아	주한진 최혜란 현진아 홍지인 황은지	
오민영 이송희 이아영 이정은 임민희	황하나	
특수교육		
김민정 김호경 박민정 이소정		
		무용예술석사
		무용공연지도
		각주리 지은비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약학석사
		임상약학
		권나영 김민선 김민정 박현미 신보현

임수연 전민선 한지민 홍주희 영양학석사 임상영양학 김나영 김미선	영어영문학과 고진미 홍은미 기독교학과 안순옥 이경애 미술사학과 권영진 최경화 소비자학과 김연지 노경혜 여성학과 김현경 나성은 교육학과 김지영 모정은 박정희 이수경 이지은 유아교육학과 권수현 문복진 유선영 조하나 조해연 초등교육학과 강선미 박희경 오은정 영어교육학과 추희영 수학교육학과 문종은 이소정 채희진 디지털미디어학부 이영수 이진영 동아시아학연구 황유정 철학박사 철학과 이수정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김진숙 경제학박사 경제학과 최효미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대학원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 이선경 이지영 황지영 중어중문학과 박지영	김정화류소영 박형의신행호 윤민화 심리학박사 심리학과 오자영 언론학박사 언론홍보영상학과 채정화 북한학박사 북한학 윤은주 현인애 교육공학박사 교육공학과 유영란 정란 특수교육학박사 특수교육학과 문화원 언어병리학박사 언어병리학과 이수복 언어병리학 제현순 법학박사 법학과 김효선 경영학박사 경영학과 박선영 염혜미 최승은 이학박사 통계학과 남주선 물리학과 김지은 신혜영 전진아 최민경 화학·나노과학과 김인영 박민희 유영지 Chen Junying
---	--	---

Kochuveedu, Saji Thomas	의학박사	디자인학박사
생명과학과	의학과	디자인학부
고은비 김달아 신선미 염진아 이혜은 정희성	김남희 나윤주 박혜상 심은진 전혜진 조 혜경	김낙수 김미연
의과학과	의과학과	의류학박사
김현경 이은정 이혜아	김태희 신정아	의류학과
약학박사	공학박사	최경미
생명·약학부	컴퓨터공학과	무용박사
안숙희 이은지	이선숙 최경	무용학과
약학과	환경공학과	김정은
박미영 박윤정 박준희 채송화	문경은	지역학박사
과학교육학박사	식품공학과	지역연구
과학교육학과	고민정 성동은	장미선
김세현 장정은	음악학박사	국제대학원
보건학박사	음악학부	국제학박사
보건관리학과	김경자	개발협력
최혜정	음악박사	김지현 김진경 이재은
간호학박사	음악학부	의학전문대학원
간호과학과	이선희 이정자	의무석사/의학박사
노준희 박금주 박정인 박종덕 방미란 안 자숙 양경순 전혜진 최경애 최미선	조형예술박사	의학과
	조영예술학부	유운영
	박노경 박성연 임선희	

2014년도 '이화인 연회비 납부'에 참여해 주십시오

동창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삼만원)는 지로용지 대신 아래 계좌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2013년바자회

이화명물장터 대 바자회가 열립니다

6월 12일(목)에 이화교정에서 흥겹고 푸짐한 '알뜰장터'가 열립니다.

총 60여 개의 부스 안에 최고의 상품들이 동창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각 대학, 대학원, 과, 지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다양하고 풍성한 큰 바자회에서
알뜰구매와 색다른 즐거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때 ·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이화여대 생활환경관과 학생문화관 앞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가나다순 게재



김기순(관장)

'2013 한국음악상' 특별상 수상

이대 명예교수인 김기순 동창이 1월 21일 '2013 한국음악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음악상은 한국음악협회가 한 해의 음악계를 정리하여 국내외 음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차경애(신방 66) 동창

한국YWCA연합회 회장 연임

2월 6일 한국YWCA연합회 총회에서 차경애 동창이 제 44대 회장에 선출되어 임기 2년의 회장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2014년에도 탈핵운동을 위주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을 위한 지역조례 제정 운동, 불의 날 캠페인 등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나선화(사학 70) 동창

문화재청장 취임

신임 문화재청장에 '생명과 평화의 길' 나선화 상임이사가 취임하였다. 나선화 동창은 도자기 권위자로 2005년부터 작년까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역임하였다.



박윤옥(교육72) 동창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1월 17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박윤옥 회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혈액암협회 이사 등을 지냈다.



김명숙(무용 76) 동창

한국무용예술학회 회장 취임

2월 20일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인 김명숙 이대 교수가 창립 17 주년을 맞는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인 한국무용예술학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주연아(신방 76) 동창

이대동창 문인회 23대 회장으로 선출

2월 20일 수필가이며 인문학상을 수여하는 우호문화재단의 운영위원인 주연아 동창이 이대동창 문인회 제 2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연인을 위한 송가' 등 다수의 수필집이 있다.



**박선경(동양77)동창
용인대학교 총장 선임**

2월 28일 학교법인 단호학원은 용인대 박선경 부총장을 총장으로 선임하였다. 박 선경 동창은 1995년 용인대 교수로 부임, 2000년부터 부총장을 역임하였다.



**안영숙(정외78)동창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상 수상**

대한민국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안영숙 동창이 2013년 12월 5일 '2013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김옥수(간호 80)동창
제 35대 간호협회장에 당선**

2월 18일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김옥수 이대 교수가 임기 2년의 제 35대 간호협회장에 당선되었다.



**이경혜(불교 80)동창
대한민국 위민(爲民)의정대상 전국 1등**

부산광역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이경혜 동창이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전국 1등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제6대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전국 최고, 1등 의원으로 검증받아 인정된 것이다.



**김현남(무용 83)
동창 한국현대무용협회장 취임**

2월 8일 한국현대무용협회 제 11대 회장으로 김현남 한국체육대 생활무용학과 교수가 취임하였다.



**유혜정(법학 86)동창
강원여성연대 상임대표 선임**

2월 20일 강원여성연대 정기총회에서 유혜정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장이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



**최호정(식영 91)
서울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에 당선**

3월 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최호정 동창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입게 최고의 성흔을 자랑
- 입회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관리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 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플라자 7F • 결혼증개입 신고번호 : 강남080045